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연 주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llective Art Activities on the Depression and
Quality of Living of the Elderly in Day Care Facilities

2022년 8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연 주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정 성 배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연 주

이연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용 섭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임 재 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 성 배 (인)

2022년 8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노인장기요양시설	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시설유형	5
2. 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7
3. 노인장기요양급여	9
제2절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12
1. 주간보호시설의 개요	12
2. 주간보호시설의 현황	13
3.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노인의 특성	15
제3절 집단미술활동	16
1. 집단미술활동의 개요	16
2. 집단미술활동의 종류	17
3. 집단미술활동의 장점	19
제4절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	20
1. 노인의 우울	20
2. 노인의 삶의 질	21
제5절 선행연구	23

1. 집단미술활동과 노인 우울	23
2. 집단미술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25
3. 선행연구의 평가	26
제3장 연구설계	28
제1절 연구 참여자	28
제2절 연구 가설 및 구성	32
제3절 측정도구	35
1.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	35
2. 노인의 삶의 질 척도검사(GQOL-D)	35
제4절 집단미술활동	36
1. 프로그램 구성 및 목표	36
2.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37
제4장 연구결과	44
제1절 연구 참여자의 단계별 변화	44
제2절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51
제3절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53
제5장 결 론	5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56
제2절 논의 및 제언	57
참고문헌	61
부록	69

표 목 차

<표 2-1> 노인복지시설 유형	6
<표 2-2> 장기요양인정조사표	7
<표 2-3> 장기요양등급 구분	8
<표 2-4> 장기요양기관 현황	13
<표 2-5> 주간보호시설 현황	14
<표 3-1> 연구 참여자의 현황	28
<표 3-2> 연구 절차	32
<표 3-3> 사전·사후검사	34
<표 3-4> 프로그램 구성 및 목표	37
<표 3-5>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내용	38
<표 4-1> 연구 참여자 총 단계별 변화	50
<표 4-2>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검사 결과(실험집단)	51
<표 4-3>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검사 결과(통제집단)	52
<표 4-4> 개인별 사전·사후 삶의 질 검사 결과(실험집단)	53
<표 4-5> 개인별 사전·사후 삶의 질 검사 결과(통제집단)	54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 모형	34
<그림 4-1>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실험집단)	51
<그림 3-1>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통제집단)	53
<그림 3-1> 개인별 사전·사후 삶의 질 검사(실험집단)	54
<그림 3-1> 개인별 사전·사후 삶의 질 검사(통제집단)	55

ABSTRACT

Effects of Collective Art Activities on the Depression and Quality of Living of the Elderly in Day Care Facilities

Yeon-ju Lee

Advisor: Prof. Seong-Bae Jeong,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it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from an aging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social problems are also increasing. The majority of the elderly live alone without having a happy old age due to increasing depression and deteriorating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collective art activities have the effect of reducing depress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using day c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who received long-term care grades at 00 weekly care facilities located in N-si, Jeollanam-do, seven subjects with high depression and poor quality of life were selected using the elderly depression test (K-GDS) and the elderly quality of life test (GQOL-D). Seven experimental groups are selected, and pre- and post-testing i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earch method was designed as a method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e- and post-test result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elderly depression test (K-GDS) and the elderly quality of life scale test

(GQOL-D)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Group art activities were conducted once a week, a total of 10 sessions, and the progress time for each session was 40 to 60 minute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tudy, the elderly depression scale test (K-GDS) and the elderly quality of life scale test (GQOL-D) were conducted as pre- and post-test.

Pre- and post-mortem results were organized into tables and charts, and the changes i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group art activities on the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using day care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group art activities decreased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using day care facilities.

Second, it was found that collective art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using day care facilities.

Third, due to the step-by-step change of the elderly using day care facilities after conducting collective art activities, during the introduction period, unfamiliar questions were used with anxious expressions and negative language, causing rejection of activities. As time passed, he had fun with art activities that applied flashbacks for each session and art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with strange expressions in picture books. After the activity, I communicated with other group members and expressed my internal stories in art, reducing depression and interacting with group members through sympathetic support and positive relationships.

Key words: Collective art activities, Day care facilities elderly, effects of depression, Quality of lif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2021)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9,018천명에서 2032년 13,910천명으로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생산연령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6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증가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되어가면서 가족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더이상 가정 내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유교 사상 아래 노인과 가족을 돌보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으로 넓게 이동되어 노인복지시설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사회보험으로 시행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시설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로 구분된 세부 유형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재가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이용시설로 구분된 세부 유형으로 방문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가 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정의한 학자들의 주장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의를 보면 학자들의 주장으로 한콕(Hancock, 1990)은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노인들이 단시간 동안 잠깐 들러 휴식을 취하는 간이휴식센터(drop-in center)라 부르며 일상생활 안

정과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등 다양한 재가복지시설의 형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정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주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적응활동, 정서활동, 재활·물리치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류로는 노인건강체조, 힘겨체조, 음악치료, 원예치료, 놀이치료, 게임활동, 정서활동, 물리치료, 전래동화, 교구·블럭 활용, 미술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활동을 증진 시켜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자 프로그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하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함께 지내는 이용시설이다 보니 시설 내 전문인력 부족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통계청(2021)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독거의 우울 증상은 18.7%, 노인부부의 우울 증상은 10.4%로 독거노인의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곤, 전영숙(2017)은 노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배우자, 주변의 친구들 혹은 가족과의 이별, 자녀와의 소통 단절은 노인을 더욱더 외롭게 만들 수 있으며,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와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기표현을 하지 못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노년기의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본인의 감정과 사고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울감이 높고 언어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인지 활동 중 하나인 미술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기 쉬운 매개체로써 쉽게 노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라 판단된다.

집단미술활동을 정의를 주장한 학자는 다음과 같다. 와데슨(Wadeson, 1987)은 집단미술활동은 미술활동의 특성을 집단활동에 적용함으로써 미술활동이 창조적 에너지와 집단활동의 집단응집력 및 역동성이 결합된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단미술활동을 노인에게 적용하여 장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예진(2018)은 지나간 경험과 사건, 일 등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억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정화(2021)는 노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다른 노인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역할 수행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집단미술활동의 효과를 볼 때 집단미술활동은 표현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집단으로 하는 미술활동은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감정을 공유하며 본인의 심리적 치료나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노인의 심리적·인지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미술활동의 우울감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최정화(2021)는 집단미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정서적 지지로 우울이 감소 되었으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아통합과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차수경(2021)은 집단미술활동프로그램은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은영(2021)도 미술활동이 노인들의 전체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미술활동의 삶의 질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전지영(2019)은 다양한 미술 매체를 활용하여 미술활동에 집중하고 성취감과 만족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슬기(2020)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집단미술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민수경(2021)도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활동의 우울감소와 삶의 질 만족도 관련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주간보호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주간보호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활동이 신체적·인지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미술 활동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표현함으

로써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집단미술활동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정서적 지지 및 치료적 활동으로 노인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 감소와 긍정적인 정서와 대인관계로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증진되고 일상생활능력이 향상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 위한 기초자료제시에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 감소와 긍정적인 삶의 질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장기요양시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시설유형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본 제도로 표기)를 실시하였다. 본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 돌봄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에 의거 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생활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본 제도를 5번째 사회보험으로 제정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요양 대비를 하였다고 보고되어 진다. 2008년 7월부터 본 제도가 도입되어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설립되면서 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시설로 나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첫째, 생활시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 대상 노인을 24시간 365일 돌보는 시설로 주거하는 형태이다. 이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나누어지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세부 유형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위 시설들은 공적부조에 해당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기관으로서 세부유형을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둘째, 이용시설은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시설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어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기관으로서 방문서비스로 방
 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있으며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
 용구지원서비스가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적부조시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 있다. 이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생활시설과 이용
 시설이 큰 틀로 나누어 공적부조와 본 제도와 연관된 시설로 나누어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표 2-1> 노인복지시설 유형

종 류		세 부 유 형
생 활 시 설	노인주거복지시설 (공적부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용 시 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간호, 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공적부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 기 관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 리 지 원 기 관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출처: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며, 각 항목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조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으로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다.

인정신청 후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 항목에 따라 <표 2-2>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실시한다.

<표 2-2>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 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압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각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실시한다.

첫째, 신체기능은 12항목으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 자립으로 생활이 가능한 여부를 12항목으로 나뉜다.

둘째, 인지기능은 7항목으로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낱짜불인지, 상황판단력 장애 등 오늘의 낱짜를 모르거나 상황을 판단의 여부, 본인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인지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

셋째, 행동변화는 14항목으로 망상, 대/소변 불결행위,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등 대상자의 행동을 판단하고 행동 변화를 조사한다.

넷째, 간호처치는 9항목으로 욕창간호, 도뇨관리, 경관영양,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간호처치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다섯째, 재활은 10항목으로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운동장애 4항목으로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조사하고, 관절제한 6항목으로는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앞서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후 점수를 매겨 <표 2-3>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과 같이 등급이 판정된다.

<표 2-3>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등급	내용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장기요양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이고 2등급은 상당부분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이고 4등급은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이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이다.

인지지원등급은 과거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었으나 치매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인지지원등급 즉, 6등급이라고도 하며 이 등급은 인지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며, 장기요양 종사자 중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만이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진행자로 선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급여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기타재가급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나누어진다.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가정방문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고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 내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을 유지 및 향상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법」 제 38조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일상생활과 가사지원 서비스, 신체적·인지적 활동을 통해 생활안정과 신체적·정신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간보호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의 세부 유형으로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서비스가 있고 간호 및 처치의 세부 유형으로는 혈압·맥박·체온측정 및 관찰, 투약관리,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호흡기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서비스가 있으며 기능회복훈련의 세부 유형으로는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가족지지, 사회적응, 인지훈련 등이 있고 이외 기타서비스는 응급서비스, 언어치료, 치매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단기보호의 급여내용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도 포함된다.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라고도 한다.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진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지원과 급식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만들어 일상생활에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지역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이 서비스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처럼 가정에 방문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과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이 범위 이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이 금지되어 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중복이 인정된다.

제2절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본 절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주간보호시설의 개요, 주간보호시설의 현황,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노인의 특성의 순서로 소개하겠다.

1. 주간보호시설의 개요

주간보호시설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에 따르면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개념적 정의를 제시한 학자들도 있다. 로위, 루이스(Lowy·Louis, 1980)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신체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경미한 혼란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고, 노인들에게 사회적 접촉과 경험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와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노인들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인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공되고 타인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회적, 문화적으로 교류되어 사회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 등급으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이다.

김승희(2017)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허약한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생활을 벗어나 자립생활과 심신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능을 향상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둘째, 낮 동안 노인을 돌봄으로써 노인 가족 부양자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직업이 있는 부양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가족

의 긴장을 줄이고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가족구성원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한다.

2. 주간보호시설의 현황

장기요양기관인 주야간보호시설의 시설 수와 정원 수의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2021)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0년 기준 25,384명으로 전년도 대비 431곳이 신설되었으며 정원 수는 2020년 기준 351,333명으로 전년도 대비 35,936명 증가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방문요양은 2020년 15,412곳으로 2017년도 대비 3,750곳 신설되었으며, 방문목욕은 2020년 11,086곳으로 2017년도 대비 1,729곳 신설되었다.

<표 2-4> 장기요양기관 현황

구 분	2020		2019		2018		2017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방문요양	15,412	-	15,305	-	12,335	-	11,662	-
방문목욕	11,086	-	11,121	-	9,665	-	9,357	-
방문간호	774	-	795	-	682	-	650	-
주야간보호	4,587	144,822	4,179	122,252	3,211	83,674	2,795	66,607
단기보호	148	1,314	162	1,446	179	1,646	218	2,085
복지용구	1,941	-	1,975	-	1,920	-	1,892	-
노인요양시설	3,850	188,302	3,604	174,634	3,389	163,484	3,289	156,86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913	16,895	1,939	17,065	1,931	16,944	2,015	17,681
합 계	25,384	351,333	24,953	315,397	21,290	265,748	20,377	243,235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방문간호는 2020년 774곳으로 2017년도 대비 124곳이 증가하였다. 주야간보호시설은 2020년 4,587곳으로 2017년도 대비 1,792곳이 신설되었으며 정원 수는 2020년 144,822명으로 2017년도 대비 78,215명이 증가하였고, 단기보호시설은 2020년 148곳으로 2017년도 대비 70곳이 감소하였다.

복지용구기관은 2020년 1,941곳으로 2017년도 대비 49곳이 증가하였고 노인요양시설은 2020년 3,850곳으로 2017년도 대비 561곳이 증가하였으며 정원수는 2020년 188,302명으로 2017년도 대비 31,440명이 증가하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20년 1,913곳으로 2017년도 대비 102곳이 감소되었고 정원 수는 2020년 16,895명으로 2017년도 대비 170명 감소하였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장기요양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주간보호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단기보호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관 수는 2017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통계청(2021)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주간보호시설이 2,321곳으로 2019년도에 비해 505곳이 증가하였고 입소정원도 72,639명으로 2019년에 비해 19,552명이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표 2-5> 주간보호시설 현황(2017~2020년)

(단위 :개소, 명)

종류	시설	2020		2019		2018		2017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2,656	0	1,513	0	1,051	0	1,001	0
	주·야간보호	2,321	72,639	1,816	53,087	1,312	33,815	1,174	27,934
	단기보호	73	956	78	744	73	827	80	964
	방문목욕	1,596	0	942	0	650	0	609	0
	방문간호	95	0	60	0	21	0	10	0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86	0	0	0	0	0	0	0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385	0	412	0	387	0	342	0
	소계	7,212	73,595	4,821	53,831	3,494	34,642	3,216	28,898

출처 : 통계청,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

주·야간보호시설의 시설 수는 2017년 1,174곳, 2018년 1,312곳, 2019년 1,816곳, 2020년 2,321곳으로 2017년에 비해 1,147곳이 늘었다.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2017년 27,934명, 2018년 33,815명, 2019년 53,087명, 2020년 72,639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20년의 입소정원은 44,705명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재

가노인복지시설 중에 주간보호시설은 시설 수와 입소하는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 간호, 목욕기관과 주간보호시설 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가정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시설에서 8시간 이상부터 낮에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지원, 정서지원, 인지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특성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 발표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형태 통계를 보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나누어진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84세 이하 연령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도시의 인구의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나누어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의 수를 보면 장기요양 4등급의 수급자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는 3등급이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식사(8.8%), 가사 활동(13.1%), 일상 활동(29.2%), 외출(16.4%), 통증(11.3%), 무료함(13.8%), 기타(7.5%)별로 보면 일상생활 활동이 29.2%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무료함 13.8%로 높았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독거노인으로 시설에서 낮동안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정집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새로운 환경인 주간보호 시설에 입소하신 노인들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긍정적인 정서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무력감을 겪게 된다. 사회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상실로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인지하는 노인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집단원들의 친밀감 형성과 긍정적인 정서 지원, 유대감 형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집단미술활동

본 절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집단미술활동의 개요, 집단미술활동의 종류, 집단미술활동의 장점의 순서로 소개하겠다. 집단미술활동의 종류는 본 연구의 집단미술활동 중심으로 회상중심의 집단미술활동과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을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집단미술활동의 개요

집단미술활동의 용어는 1961년 울만(Ulman)이 처음 사용하였다. 울만(Ulman)은 미술표현으로 한 사람의 외부세계와 내부세계가 만나는 곳이라 정의하였다. 미술 활동은 교육, 재활 정신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시각적 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아의 통합이 가능하다. 또한, 미술을 매체로 한 심리치료의 분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으로 한 사람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집단미술활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해보았다. 한국미술치료학회(2020)는 집단미술활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자기표현을 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상실, 억제, 왜곡 등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동일화와 자기실현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집단원들과 서로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며 다른 집단원들과 피드백(Feed-back)으로부터 공감 또는 자기 이해를 촉진 시키고 사회성을 증진 시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하는 장점이 있다. 벵게(Wenge, 1993)와 미스-크리스 텔러(Mees-christeller, 1996)에 의하면 노인 미술활동은 표출하지 못했던 자아의 감정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완화하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 환경에서 불안, 두려움,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들은 색칠하기, 가위질하기, 찢기, 붙이기, 접기, 그리기 등 소근육으로 미술활동을 하면서 신체 재활과 시지각 협응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미술활동을 통해 억제된 자아의 감정을 표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삶의 질

을 향상 시켜준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 집단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표현을 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감정 표현의 노출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적인 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집단 활동은 개인의 이야기를 집단원들과 나눌 수 있고 상호적 도움을 줄 수 있어 개인 활동에 비해 훨씬 자아를 표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단미술활동은 노인들에게 신체적·인지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구가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감각적 등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추측된다.

2. 집단미술활동의 종류

(1) 회상중심의 집단미술활동

미술 활동(art activities)은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여 안도감과 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미술 활동은 심리적 활동의 일종으로 조형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을 표현하고 감정의 이완을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시각적 매체를 통해 자신이 지닌 감정의 복합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문제를 인지하며 그것들을 해결하고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학자들이 정의한 회상요법을 정리하면 프라이(Fry, 1983)는 회상요법이 노인들의 경험한 과거 사건들 중 긍정적이고 유쾌한 경험을 기억해내어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카멜(Carmel, 1991)은 노년이 되면서 느끼는 무력감, 소외감, 고독감 등을 그들 각자의 과거를 회상하며 서로 나눔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나아가 신체적 안녕도 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정의하였다.

안수영(2020)은 회상기법 미술 활동의 장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회상기법을 통해 노인은 추억을 매개로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즐거운 시

간을 가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문제해결의 요인으로 회상을 통해 상실감을 대처하고 현재 당면한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룰 수 있다.

셋째, 인생 회고의 요인으로 이제까지 자신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고 자신의 과거 생활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회상을 통한 미술 활동은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기억과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다른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나누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며 기억을 떠올리면서 뇌 기능의 퇴화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을 위한 회상기법의 주제들은 개인·환경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수집된 정보 중에서 공유가 쉽고 긍정적인 회상을 선정하는데 주로 어린 시절, 가족사, 인상 깊었던 곳, 친구, 활동력 등이며 과거의 기억을 미술로 표현함으로써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 간의 회상 신호를 자극할 수 있다.

(2)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합쳐진 책이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흥미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선, 그림이 지닌 색깔과 인물들의 행동과 공간들의 묘사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그림책을 정의한 학자들의 주장은 랜돌프 칼데코프(Randolph Caldecott, 1880)는 “그림책에 그림이 없다면 그 책이 주는 정보는 불완전한 것이며 그림이 갖는 독자적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한 최초의 책”이라고 정의하였다(박소현, 2014, 재인용).

그림책의 교육적 자료로서의 그림책의 가치에 대해 마쓰이 다다시(ついでただし, 2011)는 다섯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 그림책은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든다. 둘째, 그림책은 독서의 즐거움을 준다. 셋째, 그림책을 읽는 동안 감동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림책은 읽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문장과 그림을 포함하는 언어를 통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전달된다. 넷째, 소리 내어 읽어주는 그림책 체험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듣는 힘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고 했다. 다섯째, 그림책에 나와 있는 문장의 한 구절, 삽화의 한 부분이 자아낸 놀라움, 두려움, 기쁨, 공감 등이 마음속에 남아 그것이 긴 시간에 거쳐 여러 가지 사색과

체험을 통해서 싹트고 발전하고 성장을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림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 지영화(2013)는 그림책의 이야기는 길지 않고,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되어있어 노인들에게는 흥미를 이끌 수 있다고 했다. 박소현(2014)은 그림책 속의 이야기와 본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노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기회를 주고 그림책의 서사구조가 간단하게 되어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고 책 내용의 그림을 보고 추론을 통해 언어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책 속의 그림은 글을 대신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충 수단으로 노인들의 대다수가 한글을 말씀하실 줄은 알지만 쓰실 수 있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은 노인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개방적 사고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진심을 표현함으로써 집단 내의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며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지, 행동, 정서발달을 예방적 차원으로써 우울 감소와 삶의 질 향상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집단미술활동의 장점

집단미술활동은 창의성을 통한 내면을 표현하는 활동으로써 개인의 심리상태와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 관계에 있는 심리, 정서적인 요소를 미술 활동을 통하여 외면으로 표현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혼란스러운 나의 감정을 완화할 수 있다.

집단미술활동의 장점을 정리하면 문태란(2019)은 집단미술활동이 집단원들과 함께 내면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비언어적 활동으로 자연스러운 감정공유와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안수진(2018)은 집단미술활동은 미술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자기표현을 어려워하고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집단미술활동은 일대일이 아닌 집단원들과의 함께하는 미술 활동으로 내면에 감정을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돕고,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집단구성원들과 대화를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집단미술활동을 통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과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집단원들과 자연스러운 유대감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제4절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

1. 노인의 우울

우울은 정신과의 감기라 불릴 정도로 대다 수의 사람들이 겪는 질병 중 하나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에 보고에 의하면 우울이란 슬프고 불행한 감정에 놓여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감정이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기분 저하로 인해 흥미나 즐거운 감정 소실, 집중 장애와 피로감, 죄책감과 무가치감을 느끼며 불면증과 식욕감퇴, 체중감소, 성욕 감퇴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회(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s (DS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에 의하면 정신질환 분류 DSM-5는 우울은 정신장애의 하나로 무기력감, 흥미 즐거움 저하, 체중감소, 무가치감, 우유부단함, 죽음에 대한 생각 등 5가지 증상이 2주 연속 지속될 때 ‘우울’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우울하면 말수가 적어지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혼자서 울며 슬퍼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울로 인해 정서적 측면으로 보면 불행감, 죄책감, 좌절감, 허무감 등의 정서 상태를 갖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재 또는 상실감으로 우울감이 지속되며 인지적 측면으로는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된다. 생리적 측면은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신체적 변화로 체중 감소와 식욕 증가가 있으며 성에 대한 흥미나 욕구가 저하된다(차지연, 2014).

기태옥(2016)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신체적 결함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만연된 무력감에 관련된 느낌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성인과는 달리 노인은 슬픈 감정이 심하고 비판적인 사고가 팽배하여 걱정이나 낙담과 같은 포괄적인 우울한 기분, 피로움, 울음, 불만 앞으로의 불길한 두려움 등으로 본인의 우울감을 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옥기(2011)는 노인의 근심·걱정·초조감이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며, 그 원인은 경제적 준비가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인 것으로 이러한 걱정이 심리적 안정성을 상실하여 노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심리적 으로 건강이나 경제상의 불안정에 대한 걱정이 우울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우울 증상으로는 무력감, 불행감, 근심, 걱정, 초조함, 인지력 저하, 활동 감소 등으로 보고하였다. 노인의 우울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우울 증상이 오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 자녀들의 무관심 등으로 정신적으로 우울 증상이 오기도 한다.

노인의 우울은 노환으로 인해 오는 것이라 간주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우울 증상을 노환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노인의 삶의 질

행정학전자사전(2021)의 삶의 질 정의에 따르면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이 경험한 모든 삶의 측면을 포괄하는 함축적인 개념으로 개인발전, 자아실현, 생태체계 균형과 같은 욕구와 만족을 본질적으로 포함한다. 나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소는 광범위 하며 이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통계청(2018)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삶의 질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평가이며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생활요건으로 주거형태, 생활비, 직업 등이 포함되며 주관적인 인지로는 대인관계, 자존감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로튼(Rotten)은 4가지 영역으로 보았는데, 첫 번째 영역은 행동 능력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정신 증상을 포함하며, 두 번째 영역은 물리적인 수단을 가진 지표들로 구분하는

환경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의 개인 공간은 얼마나 확보되었으
 며 노인의 편리성을 얼마나 배려하여 배치했는가 등의 객관적 특성의 평가 영역
 이다. 세 번째는 주관적 특성 평가로서의 주관적 삶의 질로 캠벨(Cambell, 1976)
 은 물질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여 주관적·정신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영역은 앞에 언급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노인 자신이 평가하는 심리적 웰빙 부분이다(김경화,
 2021, 재인용).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인지와 사회적인 행동을 통해 접근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물리적인 지표로 환경을 구분하는 객관적 특성영역,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특성영역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
 하여 자신이 평가하는 심리적인 영역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우지수, 2013).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면 크게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로 나뉘어 여
 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면 노인에게도 삶의 질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최정민, 20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정민(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긍정, 문
 제해결 능력향상, 적극적 태도증진 활동 중심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경증치매
 노인에게 실시하여 효과성을 알아보았는데 경증치매 노인들에게 무력감을 극복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고경애·김양이(2018)의 연구에서도 경증치매노인들에게 회상, 인지, 신체, 감각,
 일상활동으로 구성된 인지적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알아보았는데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반복적으
 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에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자료는 너무나 미미한 상태이며 많
 은 연구가 요구된다. 노인의 행복과 안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상프로그램과
 자신의 의견표현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삶의 질과 안정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긍정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제5절 선행연구

본 연구자는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집단미술활동 효과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선별하여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는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에 대한 집단미술활동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 감소에 대한 집단미술활동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는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집단미술활동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집단미술활동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집단미술활동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 집단미술활동과 노인 우울

노인의 우울과 집단미술활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수경(2021)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색칠하기 도안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에 맞춰 도안 색칠하기 활동은 성취감과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노인의 우울이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윤이나(2022)는 공예활동중심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노인의 무력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켜 우울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보고했다. 문희정(2020)도 북아트를 활용한 집단미술활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정서에 효과가 있었다고 입증하였다.¹⁾

이세영(2008)은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의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사전, 사후, 추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훈·주아영·구성민·김윤완·정혜림(2015)은 집단회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여 입

1) 북아트(book art)는 그림이 든 책이라는 뜻이다. 그림을 중심으로 한 간행물이라고도 한다.

증하였다. 김경화(2021)는 치매노인에 우울에 대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미술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우울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에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역할이 있었다. 따라서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치매노인의 우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감소된 우울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승희(2017)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의 약화로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교류와 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 사고와 성취감과 사회성이 향상되었고 노인의 우울이 감소되었다고 입증하였다. 정다겸(2013)도 집단미술활동을 통하여 뇌졸중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부정적인 행동과 언어가 미술활동을 한 후로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노인의 우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을 집단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인지적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집단원들과의 의사소통으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풀어나감으로써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미술활동으로 인해 성취감 형성을 할 수 있어 노인의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집단미술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의 삶의 질과 집단미술활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지영(2019)은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원들과 미술활동을 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매로 인한 우울한 마음과 삶에서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상자들은 배움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미술 도구를 활용한 미술활동과 나눔에 집중하고 성취감과 정서적 만족감의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민수경(2021)은 웰다잉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미술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4가지 영역인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영역, 생활환경 영역 등으로 나누어 신체적 영역에 대한 집단 간 효과는 통계적으로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리적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심리적인 변화가 더 높았다. 사회적 관계영역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입증하였다.

회상중심으로 한 집단미술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영이·이숙민(2016)은 집단미술활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삶의 질과 정서를 양적 분석하였고, 질적분석은 바디이미지(Body image)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²⁾ 첫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검사 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이 정서측정 결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바디이미지(Body image)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삶의 질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문(2016)은 회상요법 집단미술활동이 요양원 거주 경증 치매 노인의 정서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정점임(2016) 회상기반 집단미술 활동이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슬기(2020)는 회상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집단미술활동이 노인들에게 우울한 마음과 삶의 답답함을 풀어나감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사전보다 향상되는 모습을 가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상 중심으로 실시한 집단미술활동은 노인의 정서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형성으로 인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바디이미지(Body image)는 마음속에 형상화된 우리의 신체의 모습, 우리의 신체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3. 선행연구의 평가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 하였다.

첫째,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를 보면 노인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미술로 표현함으로써 미술활동을 실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노인들의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미술활동의 우울증상의 감소 효과를 입증하였다. 각 매체에 따라 노인의 우울감소에 대한 집단미술활동 효과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차수경(2021), 윤이나(2022), 문희정(2020), 이세영(2008), (홍기영 외, 2015), 김경화(2021), 김승희(2017), 정다점(2013)의 연구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집단미술활동이 치매 노인, 뇌졸중 노인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된 연구들은 많지만,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범주의 연구는 미비하고 집단미술활동으로 옛 기억을 되살리며 회상을 함으로써 노인의 우울이 감소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나감으로써 집단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미술활동 후 과거 경험 했던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과거 기억을 회상하여 옛 행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등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연구는 우울의 선행연구의 비해 미비했다. 또한, 노인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연구결과는 많지만, 주관적인 노인들의 면담을 통한 연구는 미비하다. 집단미술활동으로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는 있지만,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고찰과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의 목적인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노인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에 대해 사전, 사후검사로 측정하고 면담을 통해 노인들의 도입기, 활동기, 종결기에 따라 매 회기 별 활동 끝난 후 행동 변화를 관찰하여 노인의 우울 감소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집단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집단원들과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들을 나누어 답답한 마음을 풀어냄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옛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심리적 활동으로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N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가운데 7명을 대상으로 한다. 나이는 70대부터 90대 초반까지의 장기요양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남·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실험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7개월이 연구 기간이다.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집단미술활동 참여 의사가 있고,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을 평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의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참여자의 현황

	A	B	C	D	E	F	G
나이	82	81	87	91	71	91	82
성별	여	여	여	남	여	여	남
요양 등급	5	2	4	4	5	5	5
질환	우울증	뇌출혈	우울증	전립선 비대증	우울증	심장질환	알콜성 치매
가족 부양자	아들	아들	아들	딸	아들	아들	아들
가족관계	2남4녀	2남3녀	3남2녀	2남3녀	외동아들	4남1녀	2남2녀
주간 보호 센터이용기간	7개월	10개월	8개월	2년	4개월	11개월	1년 10개월

1.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여 슬하에 6남매를 혼자서 양육하였다. 대상자는 현재 독거로 살고 있지만, 가까이 막내아들과 막내며느리가 살고 있어 정서적·신체적·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대부분 가 능하나 허리가 굽어 있어 보행기로 의존하여 걸으신다. 현재 전반적인 인지는 양호한 편이나,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화병이 생겨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오전에 시설에 있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가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일요일은 막내아들과 막내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미술 활동, 작업 활동, 음악 활동,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할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참여도가 낮다. 예전에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던 형제들과 남편과의 기억을 회상하며 그리워했다. 시설에서의 생활에서 결석은 거의 없고 시설 내에서 타인과 의사소통이 적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

2.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센터에서 10개월 정도 지내셨고, 센터에 처음 입소했을 당시 뇌출혈로 인해 왼쪽 편마비로 이동하실 때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였다. 식사하실 때도 연하 곤란이 있어 식사 보조 도움과 이동 도움이 필요했다. 건강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자 우울증세도 같이 정서적인 문제도 왔다. 현재 큰아들과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고, 참여자 B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센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하시고 저녁 식사는 집에서 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지내신다. 산책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점심 식사 후 휠체어에 타셔서 밀어드리며 날이 좋은 날에 몇바퀴씩 돌고 들어간다. 산책 동행을 하면서 옛 남편과 있었던 일들, 자식들 힘들게 양육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려고 힘들게 농사일을 했던 일들을 회상하시며 매번 말씀하신다. 미술 활동에 참여하시며 우울했던 증상들이 호전되어 보이며 다리에 힘을 주고 지팡이에 의존하여 걸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3.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센터에서 8개월 정도 되었고,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있고 남편과는 사별했다. 처음 입소했을 시, 보호자와의 상담 중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어 옆에서 말을 자주 걸어주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립니다고 말씀을 하셨다. 항상 말씀도 자주 하지 않으시고 좋다, 싫다를 말씀 안 하

시고 항상 “선생들이 해주니 다 좋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 허리가 통증이 있다는 사실도 보호자님께 따로 연락을 받아 알게 되어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통증 완화를 위해 병원 동행해드리며 센터 내에서도 온찜질과 물리치료를 병행해드리니 그 뒤로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시며 아픈 곳이 있다면 말씀을 하셨다. 전반적인 인지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자신의 신체 건강에 대한 긍정적 사고 유도가 필요하며 현재 인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연구대상자 중 센터에서 생활 기간이 가장 길며 2년 동안 꾸준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며 잘 지내왔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드렸다. 참여자는 현재 부인과 함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이며 전반적인 인지 상태는 좋은 편이나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신체적 건강으로 변비가 있어 변비약을 과다복용하여 설사 한 뒤 기력이 떨어져 센터 이용하시는 데도 힘들어하셨다.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것보다 식이섬유 섭취를 권유해드리며 약국에서 유산균을 구매하여 드리면서 변비약 복용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렸더니 마음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려고 노력하신다. 현재 언어 및 시공간구성 등 현재 기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인지 및 정서에 도움을 드려야 하며,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솔직히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

5.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연구 참여자 중 센터에서 제일 연세가 적은 참여자로 71세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센터 내 노인들 중에 제일 좋지 않다. 신체적인 건강으로는 당뇨, 갑상선, 빈혈 등으로 항상 몸이 부어 있으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 약의 개수도 많다. 정신적 건강으로는 큰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딸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게 되

었다. 정신의학과에서는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가 먹는 약의 세기로 정신과 약을 처방하였으며 망상 증상이 있으며 헛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신다. 우울척도검사에서 제1 우울증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센터 내에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정서지원과 유대감 형성이 필요하다.

6.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는 현재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풍선험장술로 인해 몇 걸음 걸으시면 숨이 차고 힘들다고 말씀하신다. 슬하에 4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옛 5일장을 다니면서 생산 가게를 영업하며 계산에는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노화로 인해 치매 증상이 발견되어 환각 증세 및 배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환청이 들린다고 말씀하실 때 “고기 사세요”라는 말들이 귀에서 반복적으로 들린다고 하신다. 또한, 치매 질병 중의 하나인 배회를 하시는 행동을 보이셔서 참여자의 안전과 격려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7. 연구 참여자 G

연구 참여자 G는 현재 혼자 거주하고 계시며 주말마다 큰아들이 집에서 같이 지내신다. 참여자는 과거 부인의 사망으로 인해 노후생활의 외로움으로 술을 과하게 드시며 노화로 인한 우울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알콜성 치매로 진행되었다. 현재 알콜성 치매약을 복용 중이시며 치매 증세가 진행되면서 정서불안 및 안정이 되지 않으며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 도형 및 기억(뉴스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인지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 가설 및 구성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적 기능의 저하, 인지기능의 저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의 경우 잔존 인지기능의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첫째, 집단미술활동은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집단미술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N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15명 중 통제집단 8명, 실험집단 7명으로 실시하였고 주 2회 40~60분씩 10회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표 3-2>와 같다.

<표 3-2> 연구 절차

절차	기간
문헌 및 자료수집	2021년 09월
본 연구 설계	2021년 10월
대상자 선정	2021년 11월 10일
사전 검사	2021년 12월 13일
본 연구 진행	2021년 12월 13일~1월 31일
사후검사	2022년 02월 02일
자료 분석 및 정리	2022년 03월

본 연구는 2021년 12월 13일에 시작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 약 1개월 반의 총 10회기를 진행하였으며, 주 1회, 회기당 40~60분 정도로 오후 시간인 오후 2시에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우울 검사는 2021년 11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는 2022년 1월 31일 회기 종료 후 2022년 2월 2일에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방법은 노인 7명 중 3명은 글을 읽는 데 부담이 있어 연구자가 노인 한 명

씩 개별적으로 읽어주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문항을 체크 하였다.

(3)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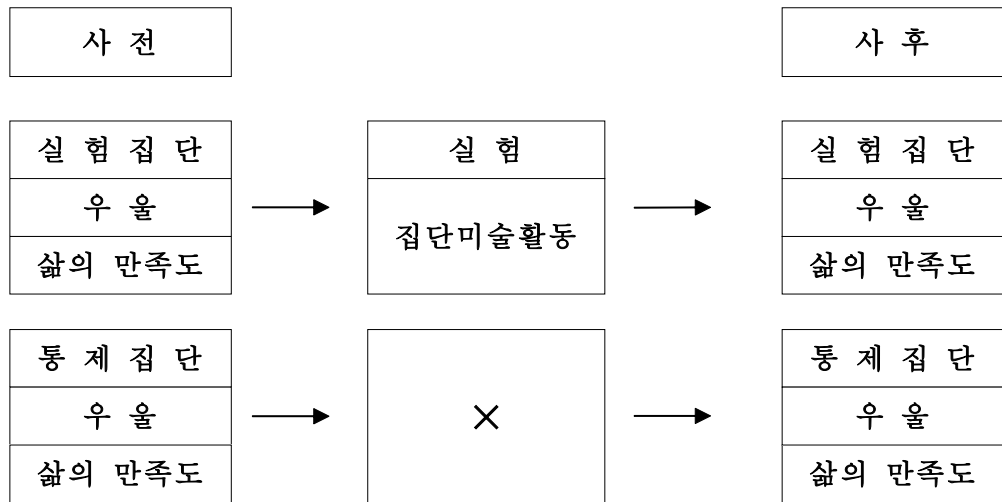
집단미술활동 장소는 N시 ○○주간보호시설 내 생활실에서 실시하였다. 센터 내부는 복도로 이루어져 생활실과 쉬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개수대와 화장실이 나누어져 있어 사용이 편리하게 되어있다. 회기 동안 시작 전에 미술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 외 사회복지사 1인과 요양보호사 1인과 함께 연구 보조로 도와주었고, 활동 중 작품을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우울척도검사와 삶의 질 척도검사로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회기에 활동이 끝난 이후 개별 수급자마다 행동과 반응을 체크 하여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작품은 쉽게 볼 수 있도록 복도나 생활실에 전시하여 노인들의 성취감과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4)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이 <그림 3-1>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우울척도검사와 삶의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다.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실험집단은 집단미술활동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집단미술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이다. 그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후 우울척도검사와 삶의 만족도 검사를 통해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본 연구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별로 연구대상자의 단계별 변화를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한다.

둘째, 집단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연구참여자 S1은 실험집단으로 7명이며, S2는 통제집단으로 8명이다.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와 노인의 삶의 질 척도검사(GQOL) 두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사전검사(O^1, O^3), 사후검사(O^2, O^4)를 설계하였다. 실험설계는 집단미술활동을 처치한 실험집단은 Y로 표시하고 처치하지 않은 집단과 따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 중 사전·사후검사는 다음 <표 3-3> 사전·사후 검사와 같다.

<표 3-3> 사전·사후 검사

구 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S1	O^1	Y	O^2
S2	O^3	X	O^4

S1 : 실험집단 S2 : 통제집단

O^1, O^3 : 사전검사(K-GDS, GQOL), O^2, O^4 : 사후검사(K-GDS, GQOL)

Y : 실험처치(집단미술활동프로그램)

제3절 측정도구

1.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K-GDS(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는 Yesavage등(1983)등이 개발한 노인우울검사를 정인 과·곽동일·조숙행·이현수(1997)이 표준화한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K-GDS를 사용하였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인 약화도 있지만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 간단하고 신속한 평가지가 필요하다. K-GDS는 짧은 시간 안에 실시 가능한 검사이다. 또한, 대상자가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 16개와 긍정적인 문항 14개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인 문항(1, 2, 3, 4, 5, 14,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은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주고 긍정적인 문항(6, 7, 8, 9, 10, 11, 12, 13, 15, 16, 20, 21, 22, 23)에 ‘예’에 0점을 ‘아니오’에는 1점을 주는 것으로 환산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으로 나올 수 있다. 14점을 적절한 점수로 보고, 14점에서 18점 사이는 우울, 의심 및 가벼운 우울증, 19점에서 21점 사이는 중등도의 우울, 22점 이상은 중증의 우울을 나타낸다.

2. 노인의 삶의 질 척도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 도구로 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Dementia; GQOL-D)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와 환경을 측정하는 13개의 문항과 전체적인 건강 및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3).

임상 과정은 임상가에 의해 실시되는데, 임상가가 질문을 하고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한 삶의 질 또는 만족도를 ‘아주 만족한다(4점), 만족한다(3점), 보통이다(2점), 만족하지 않는다(1점)’의 4점의 척도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간보호시설 노인들에게 삶의 질 척도검사(GQOL-D) 도구를

활용하여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측정하였다.

제4절 집단미술활동

1. 프로그램 구성 및 목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을 위한 집단미술활동 회기를 구성하기 위해 노인의 우울 부분에서 20년 이상의 현장에서 미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주간보호시설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울의 하위영역인 무력감, 근심·걱정·초조, 불행감, 인지기능 및 활동 저하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치료적 도움이 되었다는 김승희(2016)의 연구와 노인의 삶의 질 부분에서 집단원들과의 친밀감, 신뢰감을 형성하고 미술활동을 통해 정서적 감정을 표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고 나아가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진행한 전지영(2019)의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및 목표는 <표 3-4>와 같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목표는 노인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고 회기별 목표에 따라 과거 회상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표현한다. 또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생각, 느낌, 경험을 표현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한다. 그림책의 다양한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미술활동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표현하여 추억을 회상하는 매체로 사용한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둘째,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스런 나의 형제, 자매, 남매들’, ‘어깨동무 내동무’, ‘자랑스러운 나’, ‘멋진 내 모습’, ‘나의 인생 파노라마’

셋째,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말’, ‘나의 소중한 인생, 늙음에 대하여’ 이다.

본 연구는 어르신들의 정신적 기능의 저하, 인지기능의 저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 치매 노인의 경우 잔존 인지기능의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

<표 3-4> 프로그램 구성 및 목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고 주제에 맞는 내용을 회기별 목표에 따라 과거 회상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표현 · 회기별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생각 느낌, 경험을 표현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 · 그림책의 다양한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미술 치료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표현하여 추억을 회상하는 매체로 사용 	
집단미술활동 진행 회기		
도입기	1회기	· 나를 소개합니다
	2회기	·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활동기	3회기	· 사랑하는 나의 가족
	4회기	· 사랑스런 나의 형제, 자매, 남매들
	5회기	· 어깨동무 내 동무
	6회기	· 자랑스런 ‘나’
	7회기	· 멋진 내 모습
	8회기	· 나의 인생 파노라마
종결기	9회기	·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말
	10회기	· 나의 소중한 인생, 늙음에 대하여

2.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1)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는 김정미(2020)의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활동의 회기를 만들어 보았다. 그림책의 이미지 안에는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교훈을 읽어내 줄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림책은 읽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집단미술활동을 진행에 앞서 노인을 대상으로 함으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노인들의 개인차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살아온 인생에 경험적, 심리적, 상황적, 성격 특성이 내면에 간직되어 있어 노인의 개인차는 상당하다. 셋째, 개인별 처해있는 상황과 갈등, 문제 정도, 해결 능력이 다르기에 개인별 고려가 필요하다.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내용

단 계	회 기	프로그램 명	목표	주요 내용
도 입 기	1 회 기	나를 소개합니다.	·그림책을 읽고 나누며 집단의 마음 열기로 친밀감을 도모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내 ·미술활동 : 12띠가계도그리기 ·나와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노래-비둘기집
	2 회 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집단원들과 마음 열기와 라포형성 할 수 있다. ·그림책 읽기를 통해 주인공처럼 추억을 회상해본다.	·미술활동 : 고향 집 그리기 ·어릴 적 고향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노래-고향의 봄
활 동 기	3 회 기	사랑하는 나의 가족	·자기인식과 축진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회상해본다.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회상을 통해 어린 시절을 회상해본다.	·미술활동 : 내 손 그려보기 ·자식들에게 들려준 자장가는? ·어머니의 손맛 음식과 추억 음식 ·노래-자장가
	4 회 기	사랑스런 나의 형제, 자매, 남매들	·나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어린 시절 형제, 자매, 남매 간의 우애를 회상한다.	·미술활동 : 칠교놀이 ·형제, 자매, 남매들과 자라면서 추억 이야기 ·어린시절 추억 중 해결하고 싶었던 점 ·노래-내 동생
	5 회 기	어깨 동무 내동무	·어린 시절의 소중한 존재 인식, 자아를 발견해본다. ·놀이를 통한 회상과 긴장 완화, 과거 경험에 노출해 본다.	·미술활동 : 놀잇감 색칠하기 ·어릴 적 내가 제일 좋했던 놀이 ·놀이/실뜨기, 비석치기, 공기 등 ·노래-놀이하면서 부르는 노래
	6 회 기	자랑스런 '나'	·지나온 나의 삶의 위기 경험을 집단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나의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미술활동 : 추억의 교복 색칠하기 ·과거의 나, 현재의 나 ·확장시절 가장 힘들었던 시기 ·어려웠던 순간 자신의 의지로 극복한 용기 ·영상-눈이부시게 중 오늘을 사세요

	7 회 기	멋진 내 모습 ·자기인식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긍정적인 감정 표출과 회상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한다.	·미술활동 : 나의 가면 만들기 ·똥 하면 기억나는 추억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멋진 내모습은? ·노래-우리집 강아지
	8 회 기	나의 인생 파노라마 ·부모의 존재 인식 및 자녀의 헌신과 사랑을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집단원들과 서로 긍정적 경험을 피드백한다.	·미술활동 : 꽃신만들기 ·엄마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 ·내 삶에 있어 이루어낸 과업 ·나에게 주는 선물 ·노래-절레꽃
종 결 기	9 회 기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말 ·인생의 회고와 함께 죽음에 대해 긍정적 수용을 할 수 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아통합 할 수 있다.	·미술활동 : 만다라 색칠하기 ·죽기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나의 묘비명 ·노래-타타타
	10 회 기	나의 소중한 인생 늙음에 대하여 ·과거, 현재의 삶을 통합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가능하다. ·성취감을 통하여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미술활동 : 봉숭아 물들이기 ·나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세월의 힘이 가져다준 즐거움은? ·노년의 성숙함은 아름답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노래-아모르파티

본 연구는 도입기는 1회기~2회기, 활동기는 3회기~8회기, 종결기는 9회기~10회기로 나누었다. 다음은 각 회기별의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회기부터 2회기까지는 도입기 단계이다. 1회기의 그림책은 열두 띠 이야기, 저자 장하섭의 책이다. 프로그램명은 ‘나를 소개합니다’이다. 동화책의 줄거리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12신을 뽑아 세상에 내려보낸다. 12신들은 서로 대장이 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장을 맡겼다. 돼지 신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돼지띠를 타고난다.

2회기의 그림책은 고향의 봄, 저자 이원수 책이다. 프로그램명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다. ‘나의 살던 고향’ 작곡가 흥남파가 곡을 붙여 시작하는 동요로 옛 고향의 그림체가 들어 있는 그림책이다. 어릴 적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기억나는 추억의 장소를 회상한다.

3회기부터 8회기까지는 활동기의 단계이다. 3회기의 그림책은 엄마 손은 약손,

저자 이춘희 책이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가 아픈 동생을 엄마가 동생의 배를 만지며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하며 노래를 불러주면 배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금방 치유된다는 동화책이다. 프로그램명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다. 미술 활동은 내 손을 그려봄으로써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색칠하여 손톱과 손을 색칠하는 시간을 가진다.

4회기의 그림책은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저자 임정자의 책이다. 말쑥꾸러기 동생을 시장에 팔러가는 누나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로 동생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사랑스러운 존재의 동생을 향한 누나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책이다. 프로그램명은 ‘사랑스런 나의 형제, 자매, 남매들’이다. 목표는 나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어린 시절 형제, 자매 남매간의 우애를 회상한다. 주요 내용은 칠교놀이 미술활동과 형제, 자매, 남매들과 자라면서 추억 이야기를 통해 회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5회기의 동화책은 어깨동무 내 동무, 저자 남성훈의 책이다. 어린 적 놀이터였던 골목에서의 놀이로 골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옛 놀이와 노래로 구성된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등 놀았던 기억을 회상하는 그림책이다. 프로그램명은 ‘어깨동무 내 동무’이다. 목표는 어린 시절 주로 했던 놀이를 통해 회상과 긴장 완화를 한다. 주요 내용은 놀잇감 색칠하기 미술활동과 어린 적 내가 좋았던 놀이, 놀이/실뜨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등의 도안을 통해 색칠하기를 한다.

6회기의 그림책은 나, 저자 다니카와 순타로의 책이다.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타인의 시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너, 나,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고유한 존재로 서로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그림책이다. 프로그램명은 ‘사랑스런 나’이다. 목표는 지나온 나의 삶의 위기 경험을 집단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추억의 교복 색칠하기를 통해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바라보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 오늘을 사세요 장면을 보여드린다.

7회기의 그림책은 강아지 똥, 저자 권정생의 책이다. 강아지 똥도 알고 보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프로그램명은 ‘멋진 내 모습’이다. 목표는 긍정적인 감정표출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주요 내용은 나의 가면 만들기 미술활동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멋있었던 순간을 회

상한다.

8회기의 그림책은 **뼈약이** 엄마, 저자 백희나의 책이다. 악명 높은 고양이가 병아리인 뼈약이를 낳으면서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이야기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이다. 고양이가 뼈약이를 낳고 뼈약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생명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려낸 그림책이다. 프로그램명은 ‘나의 인생 파노라마’이다. 목표는 부모의 존재 인식과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꽃신 만들기 미술활동과 엄마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 내 삶에 있어 이루어낸 과업을 회상해보고 생각해본다.

9회기부터 10회기까지는 종결기의 단계이다. 9회기의 그림책은 나는 죽음이에요, 저자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의 책이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겁고 무서운 느낌이다.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죽음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고 삶과 사랑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프로그램명은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다. 목표는 인생의 회고와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목표로 삼아 자존감을 향상시켜 준다. 주요 내용은 만다라 색칠하기 미술활동으로 나의 묘비명을 지어본다.

10회기의 그림책은 마음의 집, 저자 김희경의 책이다. 마음에 관해서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마음의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통해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프로그램명은 ‘나의 소중한 인생 늙음에 대하여’이다. 목표는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합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고 성취감을 통하여 자존감을 향상한다. 주요 내용은 마음의 집 미술활동을 하고 세월이 가져다 준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그땐 그랬지 회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집단미술활동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삶의 질과 우울 감소의 효과가 있다. 노인의 회상은 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과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활동은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된다.

(2) 회기별 활동 및 내용

각 회기 별로 프로그램명과 준비물, 활동 목표, 연구 참여자 A~연구 참여자

G까지의 작품들을 사진을 첨부하였다. 회기 별 활동 및 내용에 관한 진행 과정과 연구 참여자 A~연구 참여자 G들의 개별 면담을 통해 태도와 행동, 표정을 관찰하여 매회기 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4 회기별 활동 및 내용과 같다.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다음은 집단미술활동의 1회기부터 10회까지의 활동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1회기의 미술 활동은 12띠 가계도 그리기 활동이다. 이 활동은 대상자의 가족들을 가계도로 그려보고 가족들의 띠를 그려보는 미술 활동이다.

2회기의 미술 활동은 고향 집 그리기 활동이다. 옛 부모님과 형제들끼리 살았던 집 또는 남편과 자식들이 오순도순 같이 살았던 집을 그려보는 활동이다.

3회기의 미술 활동은 내 손 그려보기 활동이다. 이 활동은 도화지에 손을 대고 연필로 자기 손을 그려본다. 손톱의 색깔과 손의 색깔을 색칠해보는 활동이다.

4회기의 미술 활동은 칠교놀이 활동이다. 각 색깔에 맞춰 칠교놀이의 조각을 색칠한 뒤 오려서 칠교 도안 소년의 모자에 맞춰 조각을 완성해본다.

5회기의 미술활동은 놀잇감 색칠 활동이다. 이 활동은 옛 적 동네에서 놀았던 놀이를 회상해보고 비석치기, 팽이치기, 구슬치기 등의 놀잇감의 도안을 골라 색칠해보는 활동이다.

6회기의 미술활동은 추억의 교복 색칠 활동이다. 이 활동은 과거의 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교복을 입은 소년과 소녀를 색칠하는 활동이다.

7회기의 미술활동은 나의 가면 만들기 활동이다. 이 활동은 가면의 도안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색칠하고 옆에 고리에 고무줄을 달아 가면을 써보는 활동이다.

8회기의 미술활동은 꽃신 만들기 활동이다. 이 활동은 꽃신 도안에 자신의 신을 예쁘게 색칠해보고 마무리로 꽃신에 반짝반짝한 스티커로 꽃신을 꾸며보는 활동이다.

9회기의 미술활동은 만다라 색칠 활동이다. 이 활동은 만다라는 중심과 본질을 얻어 마음속에 참됨을 가지는 것인 의미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처럼 수레바퀴의 모형과 유사하여 불교에서도 쓰이지만 만다라는 심리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융’에 의해 심리치료 방법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만다라의 기본 형태인 원을 그리면서 원이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치유 되는 것을 경험해 인간의 내적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10회기의 미술활동은 봉숭아 물들이기 활동이다. 이 활동은 노년기이지만 아직 마음은 소년, 소녀인 대상자들에게 예쁜 손톱을 물들여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집단원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한다.

제4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구 기간으로 주 1회 40~60분간 총 10회기에 걸쳐 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이 2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 7명이다.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과 관찰을 통한 참여자의 행동 변화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노인우울척도검사(K-GDS)와 삶의 질 척도검사(GQOL-D)를 활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다.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단계별 변화와 우울과 삶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 연구 참여자의 단계별 변화

매 회기 별 1회기부터 10회기까지의 전반적인 평가는 사전검사에 노인들이 처음 접해보는 설문지와 낯선 질문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도입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활동기에서는 점점 적응해가면서 다른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공감적 주제가 나왔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적 지지를 하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였다. 종결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상자들은 내적으로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우울감이 감소되고 집단원들과 소통함으로써 답답했던 마음을 풀고 공감적 분위기를 이루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매 회기별 집단미술활동을 실시한 후 연구자가 대상자와 면담과 연구자와 관찰자가 참여자의 태도와 표정, 반응을 바탕으로 집단미술활동 후 연구 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A

①도입기 : 사전검사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고 1:1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물어보는 질문에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셔서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다가 옆에 앉은 어르신께서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였다. 긴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응”, “아니” 형식으로 간결한 대화로 마

쳤다. 프로그램 도입기 활동 중 ‘나를 소개합니다’에서 12매의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12매 가계도 그리기 집단미술활동에 못하겠다고 거부반응을 보이셨고 다음 회기인 2회기 고향집 그리기 미술활동에서는 전에 살던 집을 회상하시며 “그림을 못 그리겠어”라고 말씀하셔서 연구보조자가 도와드리면서 간단하게 고향 집을 회상하시며 그리셨다.

②활동기 : 활동기부터는 점차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도 자주 하시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7회기 ‘나의 가면 만들기’ 미술활동에서 가면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표현하며 “지금은 다 늙어서 거울을 보기가 싫어” 라고 말씀하시며 가면을 예쁘게 만드셨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여쭙어 보았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가 제일 인생에서 기뻐다.”라고 말씀하셨다. 도입기에서는 간결한 대화뿐 이었는데 본인의 과거에 살아왔던 이야기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다른 집단원들과도 의사소통을 하였다.

③종결기 : 만다라 색칠하기 미술활동과 노래 ‘아모르파티’의 장단에 맞춰 흥을 돋우셨다. 참여자는 연구자와 집단원들에게도 개인적인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지비는 몇 살이요?”, “어디사요?”, “나는 아들이랑 사요.” 등 도입기, 활동기와 달리 집단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며 집단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갖게 되었다. 작품을 만들 때 보조연구자가 도와주면 “고마워,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2. 연구 참여자 B

①도입기 : 사전검사 시 우울 검사에서 실험집단 중 2번째로 우울검사에서 높게 나왔으며 의욕이 저하되어 있었다. “앉아 있으려니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며 미술활동에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활동에 참여도는 낮지만 항상 주간보호시설에 결석 없이 다니셨다. 왼쪽 편마비 증상이 있어 화장실 이동하실 때도 휠체어로 요양보호사의 도움 하에 화장실을 이용하셨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 “예전엔 나는 건강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그렇네” 라고 말씀하시며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우울 증상을 보였다.

②활동기 :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 이용하실 때, 이동하실 때 휠체

어보다는 워커로 의존해서 걷기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참여자 보호자와 상담 후 “어머니가 걸으려고 노력하시면 걸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센터 내에서 화장실 이용하실 때, 이동하실 때 등 워커로 의존하여 걷기로 참여자와 약속하고 이동하실 때 워커로 의존하지만 낙상예방을 위해 이동 부축도움드리며 참여자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어제는 아드님하고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르신,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등 참여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말벗서비스를 해드리면서 활동 진행에 앞서 휠체어보다는 워커로 의존하여 걸으시며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셨다. 도입기에서는 잘 걸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어디다 색칠해?”, “옆에서 나 도와줘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셨다.

③종결기 : 집단미술활동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휠체어로만 걸으려고 하셨던 참여자가 지팡이를 집에서 가져오셔서 지팡이에 의존하여 걸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본인이 만든 작품을 보며 “내가 색칠한거여?” 라고 물어보시며 본인의 작품을 보시곤 흐뭇한 표정과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3. 연구 참여자 C

①도입기 : 사전 검사 시 다른 집단원들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시며 눈치를 보고 계시면서 검사에 거부반응을 보이셨다.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은 좋으시지만 우울증 증상이 있어 다른 집단원들과도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으셨고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꺼려 하셨다. 목욕도 “집에서 하고 오겠다.”, “난 안해주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양에 거부하셨고 아프면 아프다는 말씀을 안하시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활동기 : 집단미술활동에 참여하시면서 활동에 이해해 어려워하지 않으셔서 활동의 이해도는 높았다. 부모님 손을 그려보는 시간이지만 한 자녀의 부모님으로서 본인의 손을 그려보셨는데 손톱의 색깔을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으로 색칠하시며 여러 색깔로 손을 표현하셨다. 다른 집단원들이 프로그램에 어려워하면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면서 집단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져가고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꺼려하셨는데 주간보호서비스로 목욕,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아프신 곳을 말씀하시며 요양보호사들과도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성립되어 주간보호시설에서 적응도 잘 하시고 활동 참여도가 높았다.

③종결기 : 활동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가 높았고 작품들을 다른 집단원들에게 보여드리며 칭찬을 해드렸더니 자신감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셨다. 활동에 어려워하는 집단원들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다른 집단원들과도 의사소통을 하며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완성된 작품을 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고 성취감을 느끼며 만족스러워 하셨다.

4. 연구 참여자 D

①도입기 : 사전검사 시 “이것이 뭐다요?” 라고 물으시며 대답하시기 어려운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셨다.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고 말씀을 잘 안하시며 무표정을 지으셨다. 집단미술활동시간에 “ 잘 못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거부반응을 보이셨다. 아내와 같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이지만 한 번씩 아내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셨고, 변비가 있어 항상 변비약을 약국에서 사서 복용하시곤 기운이 없어 하시며 활동 참여에 꺼려하셨다.

②활동기 : 항상 변비가 있어 변비약을 드시곤 하여 약국에서 유산균을 복용하시길 권유해드리며 그 이후 유산균을 복용하시고 변을 조금씩 보더니 활동 참여에 점진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본인이 지나온 세월을 말씀하시며 옛 어렸을 적에 놀았던 놀이를 색칠해보고 동네 친구들과 주로 했던 놀이를 말씀하시며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셨다. 다른 집단원들과도 의사소통을 하며 하하호호 웃음을 지으셨다. 완성작을 들고 사진을 찍어드리면 “잘 나왔소?” 라고 물으시며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이 잘 나왔네.” 라고 말씀하시며 작품에 대해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③종결기 : 다른 집단원들의 작품을 보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자신의 작품을 보며 “집에 가져가서 전시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작품에 만족해 하셨다. 변비는 완전하게 치료되진 않았으나 예전보다는 변을 보셨고, 활동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셨다. 아내와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고 싸움이 줄어들었다.

5. 연구 참여자 E

①도입기 : 사전검사 시 “난 이거 안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며 사전 검사부터 거부반응을 보이시며 자리에 앉지 않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활동 참여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셨다. “어제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가를 반복하시는 행동을 보였고 무표정과 의지가 약하고 자신감 부족으로 타인의 작품을 보고 모방하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활동에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②활동기 : 다른 집단원들의 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시곤 안마의자에 앉았다, 의자에 앉았다 하시는 행동을 보이셔서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활동에 참여해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연구 보조자가 도움을 드리면 “내 옆에서 알려 줘야해.” 라고 말씀하시며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연구자가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드리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선생, 선생얼굴이 더 예쁘요.”라고 말씀해주시며 연구자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되어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서지원을 해드렸다.

③종결기 : 활동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집중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표정이 밝아지셨다. 작품을 만드는데 다른 집단원들과 개인 이야기를 나누시며 집단원들과 관계도 좋아지셨다. 매회기마다 노래가 흘러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시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셨다.

6. 연구 참여자 F

①도입기 : 사전검사 시 말이 잘 들리지 않아 옆에 가까이 앉아 큰소리로 말씀드려야 해서 1:1로 사전검사를 실시했다. 어제 댁에서 주무시는데 “고기 사세요.” 라고 누가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씀하시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셨다. 미술활동에는 참여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있으나 활동 할 때마다 아까도 계속 “고기 사세요.” 라고 하는 데 안 들리냐고 물어보시며 예전에 생선가게를 했을 때 옆 아주머니 목소리 같다고 말씀하시며 괴로워하셨다.

②활동기 : 활동기의 ‘나의 가면 만들기’ 활동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하고 작품을 보시곤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연구자가 작품에 대한 칭찬을 해

드리면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하셨다. 다른 집단원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하셨다. 요즘은 환청이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며 편안히 주무셨다고 말씀하셨다.

③종결기 : 9회기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색칠하시며 꼼꼼하게 색칠하셨다. 작품을 만드는 데 연구 보조자가 도움을 드리면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른 집단원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주며 집단원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환청도 들렸다 안들렸다 하시지만 도입기에 비해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고 웃는 모습을 보이셨다.

7. 연구 참여자 G

①도입기 : 사전 검사 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누우려고만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활동에 소극적이고 말씀을 잘 안하시고 무표정으로 있으셔서 항상 활동에 참여하시길 권유해드리며 참여를 하시게끔 도와드려야한다. 미술활동에 미술을 하기보다 “복지회관 여러분,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라고 한자와 한글을 쓰시며 반복해서 쓰신다. 아내의 부재로 우울증상 있어 2회기 고향 집 그리기 미술활동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같이 살았던 집을 그려보시며 아내를 그리워 하셨다.

②활동기 : 활동에는 여전히 참여를 안 하려고 하시고 권유해드리며 연구 보조자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활동에 참여하셨다. 활동기 중 5회기 옛 적 놀이에 대한 미술활동에 실뜨기, 비석치기, 공기, 구슬놀이 등 놀이를 했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알까기 놀이를 다른 집단원들과 게임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였다.

③종결기 : 연구 보조자가 도움을 드려야 활동에 참여하시곤 했는데 미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며 참여도가 높아졌다. 다른 집단원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고 도입기에 비해 밝은 표정을 지으셨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도 줄어들었고, 다른 집단원들과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실험집단 총 7명의 태도와 표정을 관찰 후 도입기, 활동기, 종결기로 나누어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A~연구 참여자 G까지의 총 단계별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 4-1> 연구 참여자 총 단계별 변화로 정리하였다.

<표 4-1> 연구 참여자 총 단계별 변화

연구 대상자	총 단계별 변화
연구 참여자 A	사전검사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1:1로 검사지에 있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표정이 신뢰하지 않는 표정을 하고계셨다. 사전 검사 이후 도입기의 미술활동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셨으나 점차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회기마다 작품을 해드리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연구 참여자 B	사전 우울척도검사에서 높게 나왔으며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며 초기에는 활동에 의욕이 저하되어 있었고, 참여도가 낮으셨다. 몸이 건강해지면서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만든 작품을 보며 말씀도 자주 하시고 다른 집단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셨다.
연구 참여자 C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은 좋으시지만 다른 집단원들과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연구보조자의 도움을 꺼려하셨다. 집단미술활동에 참여 하시면서 옛적을 회상하면서 미술로 표현함으로써 말로도 다른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집단원들이 활동에 어려워하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활동에 흥미도와 만족도가 높아졌고 작품들을 다른 집단원들에게 보여드리니 자신감 향상된 모습을 보이셨다.
연구 참여자 D	사전검사 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였고, 활동에 소극적이며 잘 안하려고 하시고 무표정을 지으셨다. 활동기에서는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완성작을 들고 사진을 찍어드리면 웃으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옛적 기억을 회상하시며 말씀도 자주하시는 행동을 보이셨다.
연구 참여자 E	사전검사, 활동 참여에도 거부반응을 보이셨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고 무표정을 지으시고 의지가 약하신 모습을 보이셨다. 다른 집단원들이 활동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더니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연구보조자가 도움을 드렸다. 매회기가 끝나면 면담을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노출함으로써 유대감 형성을 하고 활동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연구 대상자 F	사전검사 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1:1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환청이 들린다고 말씀하셨다. 활동에 색칠하기 프로그램이나 색칠을 꼼꼼하게 색칠하시고 작품을 보시곤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연구자가 작품에 대한 칭찬을 해드리면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다른 집단원들과도 의사소통을 자주 하시고, 환청이 요즘은 잘 안들린다고 하시면서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고 웃는 모습이 잦았다.
연구 참여자 G	활동에 소극적이고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시고 무표정으로 계셔서 항상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권유해드린다. 한자와 한글을 쓰시면서 프로그램에 맞는 활동을 안 하셨다. 연구자가 옆에서 도움을 드려야 활동에 참여하셨는데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 행동을 보이시고 작품에 대해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제2절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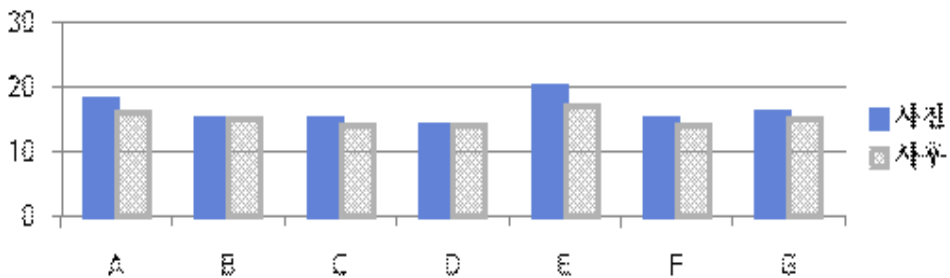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중 실험집단의 집단미술활동 이후 우울 척도에 대한 변화는 <표 4-2>, <그림 4-1>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결과 다음과 같다.

<표 4-2>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결과(실험집단)

구 분	총점(30점 만점)		우울감 감소
	사전	사후	
A	18	16	-2
B	15	15	0
C	15	14	-1
D	14	14	0
E	20	17	-3
F	15	14	-1
G	16	15	-1
합계	113	105	-8

한국형노인우울검사척도(K-GDS)을 이용한 우울수준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 나올 수 있다. 14점을 최적절한 점수로 보고, 14점에서 18점까지는 우울, 우울증 의심 및 가벼운 우울증, 19점에서 21점 사이는 중증 우울증, 22점 이상은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

노인우울검사



<그림 4-1>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실험집단)

그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연구대상자 A, B, C, D, E, F, G의 사전, 사후 우울검사 결과 A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우울감이 2점 감소되었으며 C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1점이 감소 되었고, E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3점이 감소 되었다. F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1점이 감소 되었으며, G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우울감이 1점 감소 되었다. B와 D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우울감이 증가 되지도 않고 감소 되지도 않았다. 연구 대상자 중 E가 사전, 사후검사 결과 우울감이 크게 감소 되었다.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총합계는 113점이고 사후검사 총합계 105점으로 사전, 사후 차이는 8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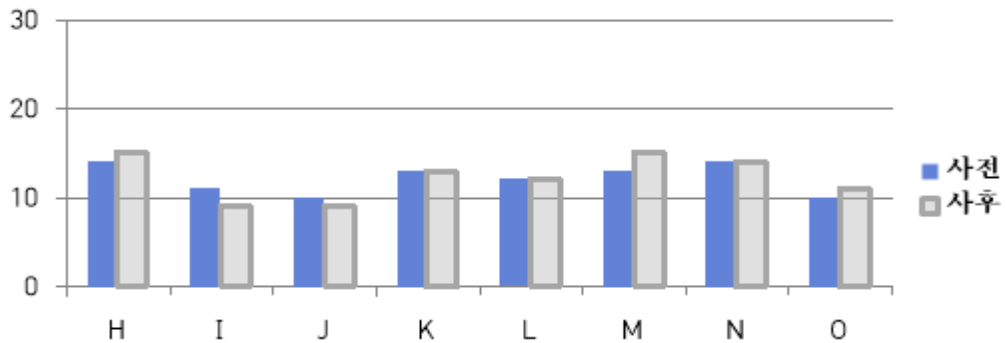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중 통제집단의 집단미술활동 이후 우울 척도에 대한 변화는 <표 4-3>와 <그림 4-2>와 같다.

<표 4-3>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 결과(통제집단)

구 분	총점(30점 만점)		우울감 감소
	사전	사후	
H	14	15	+1
I	11	9	-2
J	10	9	-1
K	13	13	0
L	12	12	0
M	13	15	+2
N	14	14	0
O	10	11	+1
합계	97	98	+1

통제집단 연구 대상자 H, I, J, K, L, M, N, O의 사전, 사후 우울 검사 결과 H와 O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우울감이 1점 증가하였고, K, L, N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우울감이 일정하고 변화가 없었다. I는 사전, 사후검사 결과 우울감이 2점 감소 되었으며 M은 사전, 사후검사 결과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총합계는 97점이고 사후검사 총합계는 98점으로 우울감이 1점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 우울검사 결과와 사후 우울검사 결과 차이는 우울감이 8점이 감소 되었고 통제집단의 사전 우울검사 결과와 사후 우울검사 결과 차이는 우울감이 1점 향상되어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들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노인우울검사



<그림 4-2>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통제집단)

제3절 집단미술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질 척도(GQOL-D)를 사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15점~60점이고 ‘아주 만족한다(4점), 만족한다(3점), 보통이다(2점), 만족하지 않는다(1점)’ 선택한 항목에 따라 점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중 실험집단의 집단미술활동 이후 삶의 질 척도에 대한 변화는 <표 4-3>과 <그림 4-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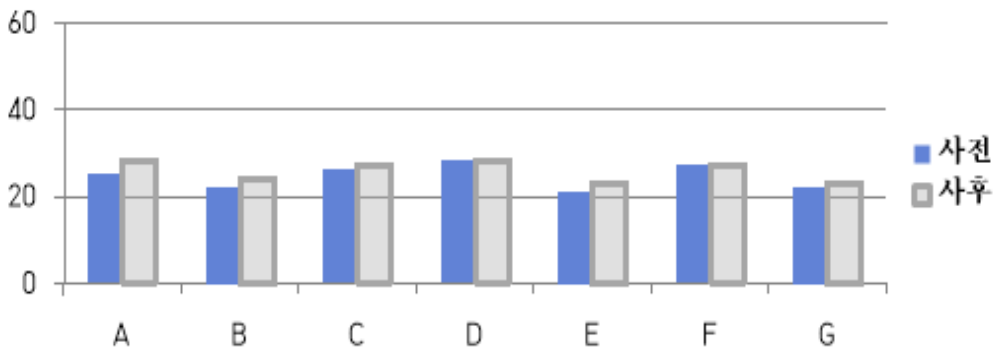
<표 4-4> 개인별 사전·사후 삶의 질 검사 결과(실험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삶의 질 향상 정도
	사전	사후	
A	25	28	+3
B	22	24	+2
C	26	27	+1
D	28	28	0
E	21	23	+2
F	27	27	0
G	22	23	+1
합계	171	180	+9

실험집단 연구대상자 A, B, C, D, E, F, G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 A는 삶의 질 향상 정도가 3점 향상되었으며 B는 삶의 질 향상 정도가 2점 향상되었다.

C와 G는 삶의 질 향상 정도가 1점 향상되었으며 D와 F는 삶의 질의 향상 정도가 변화가 없다. 사전, 사후의 삶의 질 향상 정도의 차이는 사전보다 9점 향상되었다.

삶의 질 척도



<그림4-3> 개인별 사전·사후 삶의 질 검사 결과(실험집단)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중 통제집단의 집단미술활동 이후 삶의 질 척도에 대한 변화는 <표 4-5>과 <그림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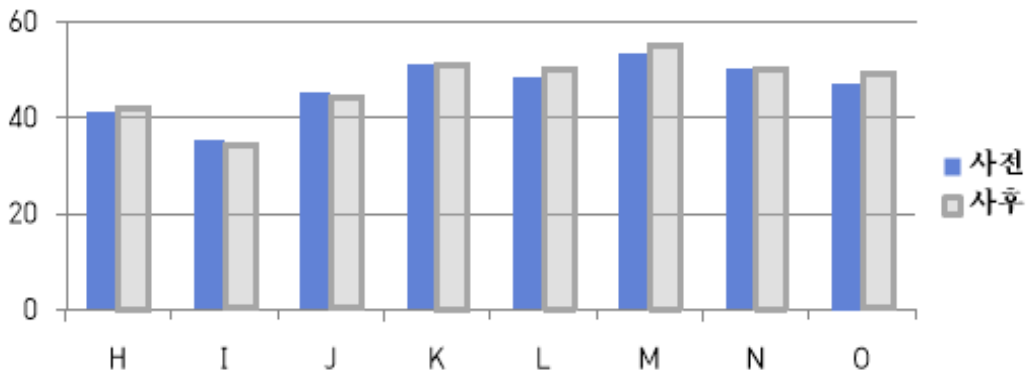
<표 4-5> 개인별 사전·사후 우울 검사 결과(통제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삶의 질 향상 정도
	사전	사후	
H	41	42	+1
I	35	34	-1
J	45	44	-1
K	51	51	0
L	48	50	+2
M	53	55	+2
N	50	50	0
O	47	49	+2
합계	370	375	+5

통제집단 연구대상자 H, I, J, K, L, M, N, O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 H는 삶의 질 향상 정도가 1점 향상되었고 I와 J는 삶의 질 향상 정도가 1점 감소 되었으며 K와 N은 삶의 질 향상 정도가 변화가 없다. L과 M 그리고 O는 삶의 질 향상 정도가 2점 향상되었다. 사전, 사후의 삶의 질 향상 정도의 차이는 사전보다 5점 향상되었다.

본 연구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사후 삶의 질 향상 정도를 비교했을 때 9점 향상되었고 통제집단의 사전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사후 삶의 질 향상 정도를 비교했을 때 5점 향상되어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삶의 질 척도



<그림 4-4> 개인별 사전·사후 삶의 질 검사 결과(통제집단)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대상은 N시에 소재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5등급의 노인 7명을 대상으로 매회기 별로 대상자를 관찰하고 면담하여 단계별 변화를 기록하고, 노인우울척도검사(K-GDS) 14점 이상, 노인 삶의 질 척도 검사(GQOL-D) 40점 미만의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였고 집단구성은 총 15명으로 실험집단 7명과 통제집단 8명을 구성하였다.

집단미술활동은 주 1회, 총 10회기로 매회기 별 진행 시간은 40~60분간 진행하였다.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회기 별로 대상자를 관찰하고 면담하여 단계별 변화를 기록하고, 노인우울척도검사(K-GDS)와 노인 삶의 질 척도 검사(GQOL-D)를 사전·사후검사로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표정과 태도에 관한 질적연구 결과

매회기 별로 참여자를 관찰하고 면담하고 태도와 반응을 살펴본 결과 사전검사 시 전반적으로 당황스러운 표정과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였다. 도입기 활동 초반에는 처음 접하는 그림책으로 흥미를 보이는 대상자와 알 수 없는 표정들을 지은 대상자로 나누어졌지만 전반적으로 활동에 있어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도움 하에 활동에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고 처음 접해보는 매체와 미술활동함으로써 옛 기억을 떠올리며 다른 집단원들과도 말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종결기에는 미술활동과 그림책에 흥미와 집중있는 태도와 서로 집단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하게 되었다.

(2) 사전·사후 실험 연구 결과

사전·사후의 결과를 표와 차트로 정리하여 우울과 삶의 질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사후 우울척도검사(K-GDS) 결과 실험집단은 8점 감소되어 집단미술활동 이후 사후 우울감의 총점이 사전 우울감의 총점보다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우울감이 1점 증가하여 사후 우울감의 총점이 사전 우울감의 총점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증가하였다.

둘째,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삶의 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사후 삶의 질 척도 검사(GQOL-D) 결과 실험집단은 9점 향상되어 집단미술활동 이후 사후 삶의 질 총점이 사전 삶의 질 총점보다 높게 차이 났으며 통제집단은 5점 향상되어 사후 삶의 질 총점이 사전 삶의 질 총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집단미술활동 실시 후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단계별 변화로 도입기에는 사전검사 시 낯선 질문에 불안한 표정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활동에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점점 시간이 흐른 후 회기별로 회상을 적용한 미술 활동과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생소한 그림책에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활동에 참여하였다. 활동이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내적으로 있었던 내 이야기들을 미술로 표현함으로써 우울감이 감소하고 집단원들과의 공감적 지지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제2절 논의 및 제언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N시의 주간보호시설 노인 7명을 대상으로 집단미술활동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저하 되어 있는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그림책으로 노인들에게 적용하여 미술활동 접근이 쉬웠으나, 두려움과 거부반응을 보이신 참여자들이 대다수였다. 집단으로 하는 미술활동으로 집단원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을 하다 보니 과거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집단원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어려워했던 노인들은 비언어적인 매개체인 미술로 표현함으로써 우울감이 감소하고 본인의 작품을 보고 성취감을 느껴 삶의 질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차수경(2021)도 감정표현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색칠하기 그림 도안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사고 및 불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던 부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승희(2017)는 활동 도입기에서 매회기마다 생활 경험에 대한 회상을 끌어내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고 우울감소에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입증하여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나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집단원들과 긍정적인 정서지원과 유대감 형성으로 우울감이 감소 된 것으로 보아 김정화(2021)의 연구의 맥락이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집단미술활동은 서로 집단원들과 지지와 공감을 받으면서 서로 서로가 정서적 위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회상을 적용한 집단미술활동은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검사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집단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성희(2008)은 집단미술활동을 실행한 후 노인들의 삶의 질의 변화를 사전·사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진성희(2008)의 연구와 유사하며 초기 구성원 간의 어색하고 경직되었던 관계들이 중기단계로 지나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다고 했다. 전지영(2019)의 연구에서도 미술 활동을 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집단 안에서 나누면서 치매로 인한 우울한 마음과 답답함을 풀어가면서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집단 안에서 초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했다.

공예활동중심 집단미술활동을 독거노인에게 실시하여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 효과를 미친 김선영(2016)의 연구와 노인의 적극적인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노년기의 고독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자기 표출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정을 순환시켜 노인의 고독과 상실의 상처를 치유하며 위안 받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신의 정서와 느낌들을 표현함으로써 초기에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우울감소와 삶의 질 향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는 생소한 그림책으로 다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원들과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실험을 실행한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원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하고 작품을 전시할 때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활동 시간에 나누면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미술활동으로 풀어냄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7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설 이용 노인의 대상보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들에게 일상생활보조와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에 있어 전문적인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실제 이동 보조와 일상생활 보조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업무가 너무 많아 버거운 실정이다. 이에 있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시설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강사와 외부 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가급여에 적용하여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질 높은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 기간 후 본 연구 대상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의 후속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곽인숙(2002).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7), 7-17.
- 강현주(2016).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애, 김양이(2018).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2018): 431-440.
- 공혜숙(2012).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장기요양시설 성인병 환자의 무력감 및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2.1 (2012): 1-23..
- 곽인숙(2002).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7), 7-17
- 김경화(2021).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 노인복지연구, 60, 55-76.
- 김귀분, 김인숙, 정미영, 오혜경, 권영숙, 이은자, 서은주, 김세란(1999). “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음악 요법 효과.” 노인간호학회지 1.2 (1999): 213-223.
- 김도영(2015). “전래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 류정자(2001).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美術治療研究 8.1 (2001): 103-126.
- 김민희(2013). “여성의 임신상태와 바디이미지의 상관관계.” 임상미술치료학연구 8.2 (2013): 13-18.
- 김상우(2011). “점토 중심의 미술치료가 주간보호센터 노인에게 미치는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현(2010). 청소년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경기 : 이담북스

- 김승희(2017).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젤라(2003).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친 효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이, 이연숙(2017).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2.4 (2017): 217-238.
- 김연미(2021). “노인의 우울감소와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회상요법 집단사진 · 미술치료 연구”, 청운대학교 공연영상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2013).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진(2018). “요양시설 내 중증 치매노인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기(2011). “미술치료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우울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2012). “아동미술치료에 대한 미술치료사들의 치료접근방법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0.- (2012): 39-49.
- 김준수, 공마리아(2018). “집단미술치료가 경도 신경인지장애 노인의 의사소통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술치료학회. 25(1), 21-39.
- 김지향(2014). “만다라 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우울감소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명창순, 이동희, 이리아, 이승연(2010). “상호작용독서치료 사례집”, 서울: 학지사.
- 김희정(2020). “악기연주 중심의 그룹음악치료가 주간보호시설 노인의 무력감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성곤, 전영숙(2017). “자기격려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美術治療研究 24.1 (2017): 249-271.
- 동화가 있는 집(2019). 치매예방과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노인 인지활동책 놀이. 서울: 창지사
- 문태란(2019).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의사소통과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희정(2020). “북아트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정서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수경(2021). “웰다잉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연구보고서.
- 박경아(2013). “집단미술치료가 여성 노인의 우울경향과 사회·정서적 고독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맹순(2007). “통합적 간호중재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옥, 김현주(2014). “음악치료 효과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 성인·노인을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0.2 (2014): 219-239.
- 박세정(2007).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17(1), 153-176.
- 박소현(2014). “노인 대상 독서프로그램에서 그림책 읽어주기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은영(2021). “만다라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독거노인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경혜(2005). “집단 미술치료가 우울증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영(2020). “그림책을 활용한 회상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인지 기능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진(2018). “집단미술치료가 요양시설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철(2009). “노인요양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한연(2008). “집단미술치료가 치매 노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지: 가족복지연구, 13, 107-129.
- 엄명용(2000). “뇌졸중 노인을 위한 회상 그룹 운영과 평가.” 한국노년학 20.1 (2000): 21-35.

- 오영이(2016).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이, 이숙민(2016).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Industry Promotion Research(2016), 1(2): 79-86.
- 유영은(2008). “노인주간보호시설 미술치료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이나(2022). “치매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한 공예활동중심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2014). “회상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요양원거주 경증치매노인의 정서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영(2008).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주간 보호시설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슬기(2020). “회상중심 집단미술치료가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임(2019). “그림책을 활용한 상호작용 독후활동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 인지기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1999). “치매 노인의 회상 내용분석.” 노인간호학회지 1.2 (1999): 224-235.
- 이은진, 김유정(2020).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지 : 미술치료연구, 27, 995-1014.
- 이인정(2012).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과 우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4), 031-065.
- 이형주(2020). “노인주간보호센터 성과측정모형 개발 연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국희, 윤혜영(2013). “미술치료가 노인의 우울완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

- 국재활음악치료학회지 1.2 (2013): 25-41.
- 임성관(2012). "학술연구 :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계획." 디지털 도서관 66.- (2012): 45-61.
- 장혜임(2014). "오감자극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영(2019).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증치매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겸(2013). "집단미술활동이 뇌졸중노인의 우울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주(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조상희(2007). "구조적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2012).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2012): 291-314.
- 조희숙(2006). "유아의 그림책텍스트 이해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2006): 273-290.
- 지영화(2013). "노인대상 스토리텔링 학습 프로그램 효과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진성희(2008). "주간보호시설 내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수경(2021). "색칠하기 도안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 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2005).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美術治療研究12(4).
- 최정민(2014). "경증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7.- (2014): 83-103.
- 최정화(2021). "자연매체를 이용한 요양시설 노인우울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지연(201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치료 효과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 동아문화사.
- 홍기훈, 주아영, 구성민, 김운완, 정혜림(2015). “집단회상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5.2, 57-64.
- 최외선(2005).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美. 術治療研究12(4).
- 최외선(2005).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美. 術治療研究12(4).

<국외문헌>

- Cam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 Diagnistic *Criteria form DSM-IV-TR.* American,(2003).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Erikson, E. H. & Erikson, J. M.(1997). *The life ctcle completed.* NY : Norton.
- P. S. Fry, “*Structured and Unstructured Reminiscence Training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Clinical Gerontologist*, Vol. 1, No. 3, pp.15-37, 1983.
- Hancock, *Besty L.,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Encyclopedia of Social Work*(18ed), Vol 1, 1990.
- Kalish, R. A. (ED.).(1969).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Occasional papers in Gerontology*, No. 6, Ann Arbor: Institute of Gerontology, University of Michigan-Wayne State University.
- Lowton, M.(1994). *Quality of life in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 8, 138-150.
- Marian Liebmann. (2004). *Art Therapy for Groups : A handbook of Themes and Exercises*, London : Taylor & Francis
- Petzold, H., Orth, I.(1991) : *Die neuen Kreativit ä tstherapien: Handbuch der Kunsttherapie Band II.* 2nd. ed. Padaborn, Junfermann, 585-63

- Raskin, A.M. & Rae, D. S.(1981). *Psychiatric symptoms in the elderl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17
- Wenge, I. (1993). *Kunsttherapie in der geriatric*. In Domma W.(Hrsg).
 Praxisfelder Kunsttherapie. Koeln: Maternus.
- Wadson, H. (1987). *Art Psychotherap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urerm V. O.(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1), 37-49.

- 인터넷자료 및 기타자료 -

-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법률 제 8403호, 제정 2007.04.27.)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E-Book)
- 미국정신의학회(2013),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연차보고서」
- 보건복지부(2021), 「주간보호시설 현황」
- 통계청(2018), 「국민 삶의 질 지표」
- 통계청(2020),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 현황」
- 통계청 홈페이지.
 URL: <https://kosis.kr>
 (검색일: 2022년 02월 14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URL: <https://www.longtermcare.or.kr>
 (검색일: 2022년 02월 17일)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URL: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검색일: 2022년 02월 1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노인복지법” .

URL:<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년 02월 17일)

통계청(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

URL: <http://www.index.go.kr>

(검색일: 2022년 02월 18일)

부 록

- 부록 1. 집단미술활동 참여 동의서
- 부록 2.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
- 부록 3. 노인의 삶의 질 척도검사(GQOL-D)
- 부록 4. 1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5. 2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6. 3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7. 4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8. 5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9. 6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10. 7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11. 8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12. 9회기 활동 및 내용
- 부록 13. 10회기 활동 및 내용

부록 1. 집단미술활동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이 연구는 집단미술활동이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들의 우울와 삶의 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단미술활동 연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사진은 학위 논문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 연구에 참여하여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와 설문지 작성과 추가될 수 있는 검사에 참여하며 연구를 위해 작품촬영, 녹음, 인터뷰 등에 응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했으며, 이에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참여자 :

보호자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공

연 구 자 : 이 연 주

지 도 교 수 : 정 성 배

부록 2.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

(KGDS :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성명 :

문항 내용	예	아니요
1.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2.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낀다.		
3.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4.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5.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6.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7.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8.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다.		
9.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10.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다.		
11.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12. 내 나이의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건강하다.		
13.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4. 정말 자신이 없다.		
15. 즐겁고 행복하다.		
16.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17. 미처버리거나 않을까 걱정된다.		
18. 별일 없이 얼굴이 화근거리고 진땀이 날 때가 있다.		
19.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20.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을 여전히 즐긴다.		
21. 기분이 좋은 편이다.		
22.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23.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		
24.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항상 나 자신을 탓한다.		
25. 전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다.		
26. 전보다 내 모습(용모)이 추해졌다고 생각한다.		
27.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		
28.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 진다.		
29. 요즘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0. 이성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있다.		
총 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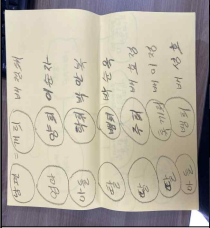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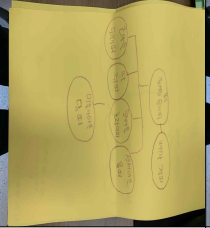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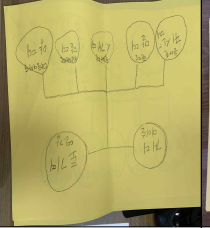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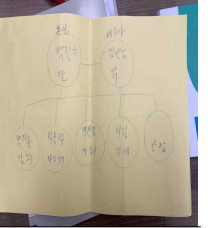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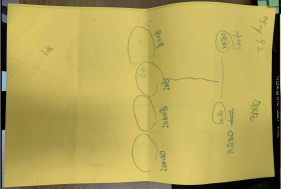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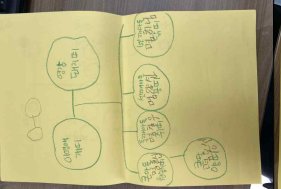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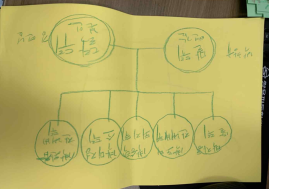
부록 3. 노인의 삶의 질 척도검사(GQOL-D)

● 이 질문지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건강, 에너지, 가족, 돈과 같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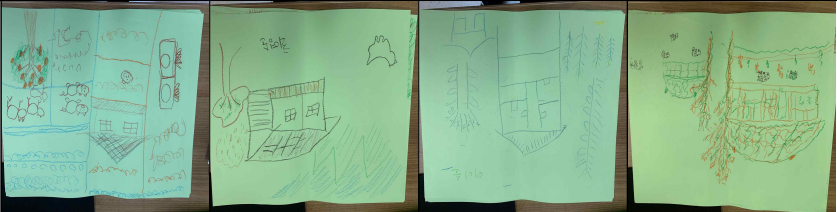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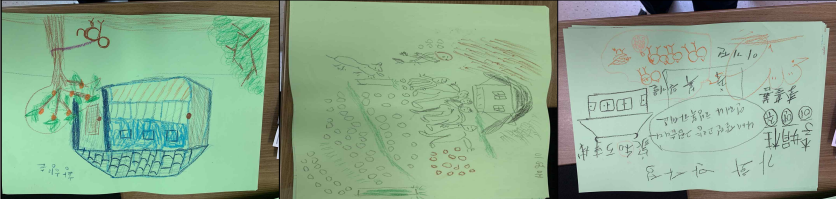
지난 2주 동안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각 질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아주 만족 한다 중에서 하나만 골라 ●표해 주십시오. 질문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에는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또한, 답이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1. 통증과 불편함	①	②	③	④
2. 힘이나 기운	①	②	③	④
3. 수면	①	②	③	④
4. 긍정적인 감정(행복, 희망 등)	①	②	③	④
5. 기억력 및 집중력	①	②	③	④
6. 자기 자신	①	②	③	④
7. 거동 능력	①	②	③	④
8. 일상적인 활동 능력	①	②	③	④
9.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10. 집	①	②	③	④
11. 쓸 수 있는 돈이나 재정 상태	①	②	③	④
12.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①	②	③	④
13. 생활환경(기후, 공해, 소음)	①	②	③	④
14. 전반적인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15. 전반적인 생활	①	②	③	④

부록 4. 1회기 활동 및 내용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나를 소개합니다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활동 목표	그림책을 읽고 나누며 집단의 마음 열기로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다. 프로그램 소개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활동 내용	12띠 가계도 그리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진행과정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분석 및 평가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열두 띠 이야기, 저자 정하섭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남편 또는 부인은 무슨 띠이고 자식들은 무슨 띠인지 적어보고 가계도를 그려본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00을 좋아하는 00띠입니다” 좋아하는 동물을 먼저 말하고 본인의 띠를 집단원들과 공유한다. 나의 태몽이나 자식들을 낳았을 적 태몽을 꿴 적을 기억을 해낸다. “내가 사는 곳은 00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00이고 나를 표현하면 00이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좋아하는 것은 음식, 동물, 사람 등 여러 가지 범주로 좋아하는 것을 말해보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본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써!라고 하시며 활동에 부정적인 반응임. · B : 소극적인 참여도와 활동에 의존적임. · C :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나 연구자, 연구보조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심. 물어보는 질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심. · D : 부정적 언어사용과 무표정을 지으심. · E : 소극적인 참여도와 “잘 모르겠다”라고만 말씀하심. · F : 위축되어 있고, 청각적 퇴행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워하심. · G : 소극적인 참여도와 무표정을 지으심. 			

부록 5. 2회기 활동 및 내용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활동 목표	집단원들과 마음을 열고 라포형성을 할 수 있다. 그림책 읽기를 통해 주인공처럼 추억을 회상해본다.			
활동 내용	고향 집 그리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작품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진행과정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고향의 봄, 저자 이원수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나누기 질문을 통해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나는 어릴 적 00아이였다” 질문을 통해 어렸을 적을 회상해본다. 내가 다시 어렵진다면?의 질문을 한다. 어릴적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기억나는 어릴 적 추억의 장소는? 의 질문을 통해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어릴 적은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셨다. · B : 동네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 C : “옛 고향 집은 방이 3개가 있었어”라고 말씀하시며 옛 고향집을 그려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다. · D : 고향 집 앞에는 예쁜 나무가 있었다고 하시며 그림을 그려보심. · E : “난 옛날에 아파트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라고 하시며 연구보조가가 도움드려야 프로그램에 참여하심. · F : 옛 고향은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시며 그림책에 있는 고향집을 그리며 마당에 강아지를 그려보시며 집중하심. · G : “옛 적에 울 마누라랑 닭을 키우고 살았어”라고 말씀하시며 옛 어렸을 적을 기억하시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았던 기억을 회상하심. <p>전반적으로 1회기에 비해 미술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셨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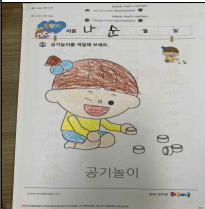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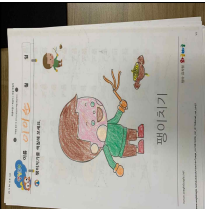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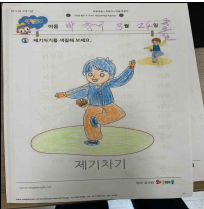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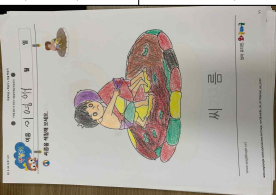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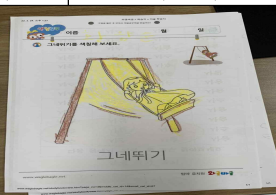
부록 6. 3회기 활동 및 내용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활동 목표	자기인식과 족진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회상해보고 자식에게 주었던 사랑을 회상해본다.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회상을 통해 어린시절을 들여다본다.
활동 내용	부모님 손 그려보기
작품	
	
진행과정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엄마손은 약손, 저자 이춘희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부모님 손 그려보기 미술활동이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손을 종이에 대고 그리 신 후 마음에 드는 색깔로 색칠을 하셨다. 이야기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손은 약손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릴 적 부모님 또는 내가 들려줬던 자장가는?”, “가족과 좋았던 기억”,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옛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중 생각나는 음식은?”의 질문을 집단원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나눈 뒤, 작품 전시를 하며 연구자와 면담을 하며 프로그램을 마친다.</p>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옛날에 우리 딸이 배가 아프면 배를 문질러줬었어”라고 말씀하심. · B : “배가아프면 약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심. · C : “옛날에 자식들 배아프면 소금물을 줬었어”라고 말씀하시며 옛적 자식들을 키웠을 때를 생각해보시며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심. · D :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손을 그려봄. · E : 엄마 손은 약손의 노래를 부르며 본인의 손을 그리심. · F :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종이에 본인의 손을 그리심. · G : 배가 아파!라고 말씀하시며 복지회관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도화지에 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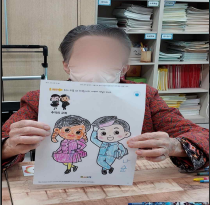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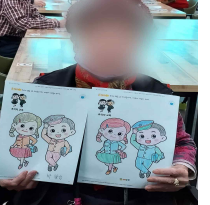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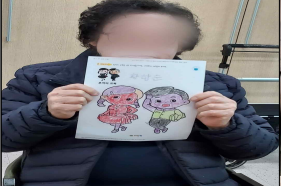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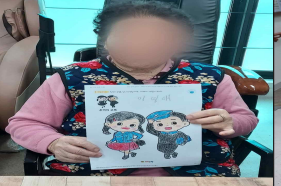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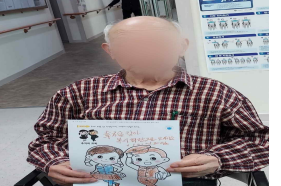
부록 7. 4회기 활동 및 내용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사랑스런 나의 형제, 자매, 남매들			
준비물	칠교놀이 도안, 가위, 풀			
활동 목표	나의 욕구에 대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어린시절 형제, 자매, 남매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내용	칠교놀이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저자 임정자의 그림책을 읽어 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칠교놀이를 위해 가위와 풀을 준비한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오리기를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시절 언니, 오빠, 형, 동생에게 서러웠던 적은 있었나요?”, “아직도 연락하는 언니, 형, 동생은?”, “형제, 자매, 남매들과 자라면서 제일 생각나는 일 한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눔으로써 집단원들과 의사소통과 공감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한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진행과정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어릴 때 아버지가 날 엄청 예뻐했었어.”라고 말씀하심. · B : 왼쪽편마비로 인해 가위질을 도와드리니 고맙다고 말씀 건네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며 프로그램 활동 중간에 잠깐 누우심. · C : “옛날에 할머니가 나를 엄청 예뻐했었어. 근데 내가 할머니가 되버렸네! 호호”라고 말씀하시며 옛 회상을 하심. · D : “옛날에 집 앞에서 동생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 그땐 다들 젊었었는데..”라고 하시며 옛 회상을 하심. · E : “어릴 때 기억안나”라고 말씀하시고 칠교놀이에는 재밌게 참여함. · F : 청각적 퇴행으로 잘 들리진 않으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G : “어릴 때 뭐 나는 멋졌어. 지금도 제일 멋져”라고 말씀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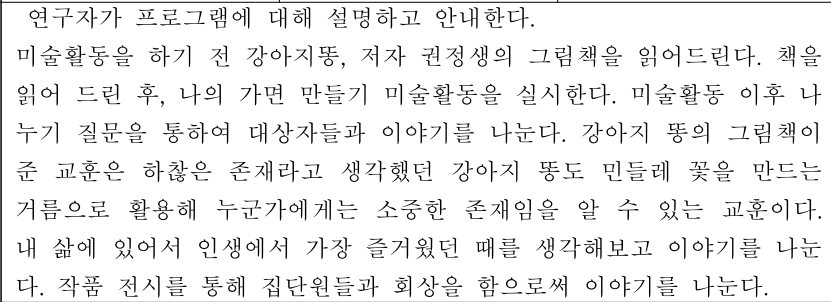
부록 8. 5회기 활동 및 내용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어깨동무 내 동무			
준비물	옛 전통놀이 도안, 색연필			
활동 목표	놀이를 통한 회상과 긴장 완화, 과거 경험을 생각해보고 회상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활동 내용	놀잇감 색칠하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작품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진행과정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어깨동무 내 동무, 저자 남성훈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어렸을 적 놀았던 놀잇감을 골라 색칠한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실뜨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딱지치기 등 좋아했던 놀이를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하며 공유한다. “어릴 적 나는 00놀이는 최고였다” 어릴 적 동네에서 친구들과 혹은 형제, 자매, 남매들과 놀았던 놀이를 기억해내며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공감적 지지를 한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옛날에 할 게 뭐 있어. 동네친구들하고 실뜨거나 공기놀이 했지 뭐 옛날이라 생각안나”라고 하시며 공기놀이에 색칠하심. · B : “나는 못하니깐 옆에서 도와줘. 옛날에 무슨 놀이를 했는지 몰라. 모르는 거 투성이야”라고 하시며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심. · C : “옛날에 뭘하고 놀았는지 생각이 안나네. 시집와서 농사일하고 바빴고 애 키우느라 바빴던 기억밖에 안난다”라고 말씀하심. · D : “옛날에 동네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했었고 명절날이면 제기차기도 하면서 재밌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옛 기억을 회상하심. · E : “몰라, 옛날에 놀았던 기억은 없는데”라고 하시며 무표정을 지으심. · F : 즐겨했던 놀이에는 모르시고 색칠하고 싶은 도안을 골라 색칠하심. · G : “옛날에 뭘 놀이 했는 지 몰라. 바보가 되버렸네”라고 말씀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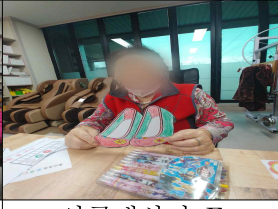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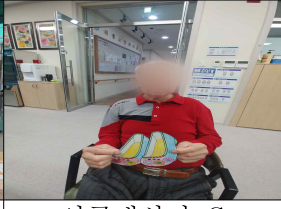
부록 9. 6회기 활동 및 내용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자랑스런 '나'
준비물	추억의 교복 도안, 색연필
활동 목표	지나온 나의 삶을 회상해보며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이루고 나의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활동 내용	추억의 교복 색칠하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진행과정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나, 저자 다니카와 순타로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추억의 교복의 도안에 그 안의 교복입은 소년, 소녀가 마치 본인이 되어 보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색칠해보는 활동이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나는 학교를 초등학교도 잘 만나와서 잘 몰라. 학교가 다니고 싶었는데 왜 우리 오빠만 가르쳤는지 아직도 서운해”라고 말씀하심. · B :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힘들었는데 내 어릴 적에는 여자라 가르침도 못받아서 우리 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공부를 똑같이 가르쳤었어”라고 말씀하심. · C : “옛날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공부도 못 가르쳤지”라고 하시며 옛 부모님을 회상하고 그리워하심. · D : “옛 적 학교 다닐적이 생각나네.”라고 말씀하시곤 사진찍기를 거부함. · E : “한글을 모르니 서러워.” 라고 말씀하시며 한글을 알려주라고 하심. · F : “옛날에 학교를 어떻게 가.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라고 말씀하심. · G : “옛날에 학교에서 1등이었어 1등!”이라고 말씀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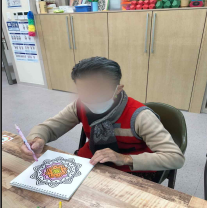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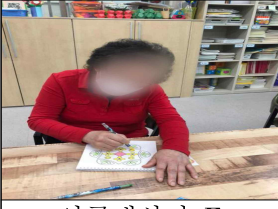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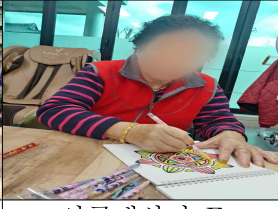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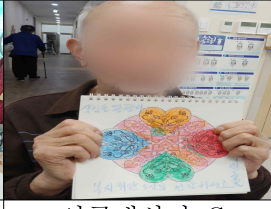
부록 10. 7회기 활동 및 내용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멋진 내 모습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활동 목표	자기인식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감정표출과 회상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한다.			
활동 내용	나의 가면 만들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진행과정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분석 및 평가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강아지똥, 저자 권정생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나의 가면 만들기 미술활동을 실시한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강아지 똥의 그림책이 준 교훈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강아지 똥도 민들레 꽃을 만드는 거름으로 활용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교훈이다. 내 삶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옛날엔 밥에 소똥도 주고 돼지똥도 주고 그 거름으로 다 해서 먹었지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즐거웠을 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고 말씀하셨다. · B : 제일 즐거웠을 때는 우리 자식들이 잘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심. · C :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즐거웠을 때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옛 시어머니가 구박했던 기억을 회상하심. · D : 즐거웠을 때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그 손자를 낳았을 때가 제일 기뻐다라고 말씀하심. · E : 즐거웠을 때는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서 잘 되었을 때 제일 기뻐다라고 말씀하심. · F : 아들을 낳았을 때가 제일 기뻐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심. · G : 제일 기뻐을 때, 닭이 알을 낳았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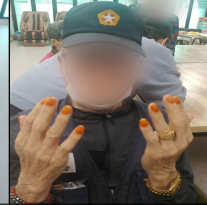



부록 11. 8회기 활동 및 내용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나의 인생 파노라마			
준비물	꽃신 도안, 스티커, 가위			
활동 목표	인생의 회고와 함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아통합을 할 수 있다.			
활동 내용	꽃신 만들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진행과정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분석 및 평가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뼈약이 엄마, 저자 백희나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꽃신만들기 미술활동에 필요한 꽃신 도안과 스티커를 준비한다. 가위질이 어려운 대상자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가위로 대신 내려드린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부모가 되었던 나와 부모가 된 자녀를 생각해보며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공감적 지지를 나누며 부모로서 공감 가는 역할을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집단원들과의 의사소통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영감 보내고 벌써 우리자식들이 커서 손주들을 보고 있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라고 말씀하심. · B : “벌써 우리 큰아들의 손주가 결혼해서 증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네.. 이 모습을 건강해서 내가 보러가면 좋을텐데”라고 말씀하심. · C : “없는 살림에 자식들 키웠는데 지금은 걱정이 없어”라고 말씀하심. · D : “우리 자식들이 벌써 70이 넘었네”라고 말씀하심. · E : “우리 자식도 예쁜데 우리 손녀는 정말 예뻐. 우리 아들 닮아서 예뻐”라고 말씀하심. · F : “이번에 우리 손녀가 증손자를 낳았어. 오래 살다 볼일이다”라고 말씀하심. · G : “우리아들, 우리 딸 다 예뻐”라고 말씀하심. 			

부록 12. 9회기 활동 및 내용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말			
준비물	만다라 도안, 색연필			
활동 목표	인생의 회고와 함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아통합을 할 수 있다.			
활동 내용	만다라 색칠하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작품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진행과정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나는 죽음이요, 저자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만다라 도안과 색연필을 준비하여 만다라를 색칠한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노년의 생애주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유언장과 묘비명을 생각하고 행복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과 함께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을 한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내 꿈이고 소원이야”라고 말씀하심. · B : “지금보다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라고 말씀하시며 병원에 있는 남편을 걱정하고 그리워함. · C : “안 아프고 건강하게 갔으면 해” 말씀하심. · D : “마누라 옆에서 재밌게 살다가 가고싶네 ”라고 말씀하심. · E : “영감도 죽고 나혼자 남아서 사려니 재미도 없네. 그래도 우리 자식들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심. · F :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여생을 살다가 갔으면 하네”라고 말씀하심. · G : “복지회관 여러분 행복하세요”라고 말씀하심. 			

부록 13. 10회기 활동 및 내용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나의 소중한 인생, 늙음에 대하여			
준비물	봉숭아 꽃, 백반			
활동 목표	과거, 현재의 삶을 통합할 수 있고 성취감을 통하여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활동 내용	봉숭아 물들이기			
작품				
	연구대상자 A	연구대상자 B	연구대상자 C	연구대상자 D
작품				
	연구대상자 E	연구대상자 F	연구대상자 G	
진행과정	<p>연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p> <p>미술활동을 하기 전 마음의 집, 저자 김희경의 그림책을 읽어드린다. 책을 읽어 드린 후, 봉숭아 꽃과 백반을 준비하여 손톱에 봉숭아 꽃을 물들인다. 미술활동 이후 나누기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현재의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월이 가져다 준 즐거움, 그때 그랬지 질문을 통해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적 지지를 나눔으로써 답답한 마음을 풀어가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작품 전시를 통해 집단원들과 회상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눈다.</p>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지금까지 크게 안 아프고 살았던 것이 좋았고, 남편 일찍 죽고 나 혼자 자식들 키울 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나에게 보물이야”라고 말씀하심. · B : “내가 쓰러지기 전에 정말 건강했었는데 한순간이더라고.. 건강한게 제일이야 무조건”이라고 말씀하심. · C : “우리 아들 딸 잘되는 것이 내 제일 기쁘고 즐거움이야.”라고 말씀하심. · D : “마누라랑 즐겁게 살다 가는 것이 기쁨이지”라고 말씀하심. · E : “몸 안프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아들 잘 되는 것이 내 즐거움이야.”라고 말씀하심 · F : “손주가 손자를 낳은 것도 보고 너무 기뻐.”라고 말씀하심. · G :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지” 라고 말씀하심. 			